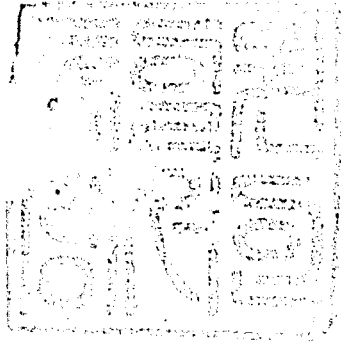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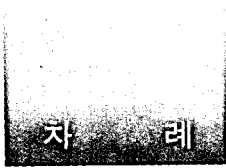


時事資料·第36號

統一教育



統一研究院



北韓動向

■ 對內動向

- 「平壤祝典」 이후의 문제점..... 7
- 政權 創建41돌 행사동향.....14
- 「韓民戰」創立 2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진행.....18
- 政務院, 「지방공업부」 신설.....20
- 經濟特區건설추진.....24
- 羅津-清津間 철도혼합선 공사추진.....28
- 신의주-유초도간 쇠밭줄다리 준공.....30
- 空軍戰力 강화에 注力.....32
- 북경 아시안게임 대비 전력강화 박차.....36

■ 對南動向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면거부
- 노동신문 論評 내용 분석43
- 최근 北韓의 對南宗教界 선동과 평양복음화대회.....47
- 「祖統」, 통일관련 白書발표.....54
- 「民民戰」, 당면투쟁방향제시.....56

■ 對外動向

- 외교부대변인, UN가입문제관련 성명 발표.....61
- 對中國관계 긴밀화에 주력.....63
- 비동맹권 대상 순방외교전개.....68
- 리비아혁명 기념행사에 고위정부대표단 파견.....73

■ 主要動向日誌

共産圈 및 周邊動向

- 제 9 차 비동맹정상회의 결과분석.....83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7.7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中, 蘇의 반응88

資 料

- 「이스베스차」誌의 「남북한 교차승인」 기사분석.....95
- 「남북한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관련내
용..... 102
- 延邊지역 방문기 110
- 북한전문가 : 玉城素 -
- 北韓學生들의 방학생활과 과외활동실태..... 117
- 北韓의 「劇映畫」 제작실태..... 123
- 최근 北韓의 무역 및 外債실태..... 128
- 南北韓 군사문제관련 자료목록..... 133

北 韓 動 向

對 內 動 向

- 「平壤祝典」 이후의 문제점
 - 政權 創建 41돌 행사동향
- 「韓民戰」 創立 2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진행
 - 政務院, 「지방공업부」 신설
 - 經濟特區건설추진
- 羅津 - 清津間 철도 혼합선 공사추진
 - 신의주 - 유초도간 쇠뿔다리준공
 - 空軍戰力 강화에 注力
- 북경 아시안게임 대비 전력강화 박차

「平壤祝典」이후의 문제점

北韓이 2년여에 걸친 물자 및 노동력 총동원체제하에 전주민을 혹사시키면서 최소한 45억달러로 추산되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 개최한 소위 「평양축전」행사는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는 것이 외국인론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취재했던 대부분의 외국인론자들은 우선, 北韓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이처럼 호사스럽고 거창한 정치쇼를 벌여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표정들이었다. 주민 월평균소득 40달러 정도이고, 50억달러라는 대수롭지 않은 외채 조차 제대로 갚지 못해 국제적인 파산선고라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북한이 적게는 45억달러(워싱턴 포스트)에서 최고 87억달러(NY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을 이 행사준비에 쏟아부어 얻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외국은행(對북한 채권은행)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LA 타임즈) 지적하고 있다.

北韓은 이 행사준비를 위해 2년여에 걸쳐 근로자·학생·軍兵力 등 전주민을 혹심한 중노동에 몰아넣는 가운데 건설자재와 장비는 물론 사소한 생활용품이나 작업용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자를 이 행사준비사업에 최우선 투입하는 총동원체제하에 준비를 강행해 왔었

다.

물론 이같은 무리한 준비사업과정에서 北韓내부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원총리 延亨默등 테크노크라트출신 관료들과 원로간부계층에서 자신들의 경제지식과 경험, 상식적 판단을 들어 현행 3차 7개년계획('87~'93)의 수행도 어려운 형편에 이같은 대규모 행사를 강행하게 될 경우 『인민생활이 최소한 7~10년이상 뒤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갈파하고 이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40여년 간의 독재정치를 결산하면서 父子세습체제에 대비해야 하는 治績선전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金日成의 카리스마적인 專橫에다 「통이 크고 대담한 성격」이라는 金正日의 저돌적 행동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북한, 즉 金日成·金正日父子가 이같은 큰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父子세습체제기반 견고화를 위한 治績과시라는 강박관념과 함께 경제·외교 및 체계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려는 안간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0년대이후 한국이 경제·외교적으로 북한에 비해 커다란 격차를 보이며 앞서나가기 시작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확고한 국제적 位相이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상당한 무게로 그들을 짓누르게 됐다.

따라서 北韓당국은 이같은 초조감과 내부적인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北韓」의 존재,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金日成 1인독재 및 父子세습체제의 당위성

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같은 「무리수」를 범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부세계에 北韓의 「존재」를 일깨워 주면서 이만한 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능력」도 과시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폭력혁명 수출 및 테러왕국」이란 달갑지 않은 비난과 호전적 이미지를 어느정도 불식하는 등의 이미지개선의 성과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 비해 그들이 당초 노렸던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선전이나 국제사회에서의 對韓열등감 만회, 金日成 1인장기 독재 및 권력세습합리화선전 등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결과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즉 이런 행사를 계기로 북한은 그들의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또는 金日成·金正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지상낙원」으로서의 모습을 과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폐쇄적인 우상숭배집단으로서의 기형적체제와 아직도 전근대적 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경제적 낙후, 애처롭기조차 한 주민들의 한심한 생활수준 등만 외부세계에 노출한 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지상낙원」이 무색하리만치 인권 凍土地대로서의 북한의 흑심한 통치체제, 金日成 및 일가에 대한 전대미문의 우상숭배놀음 등은 당연히 외국인론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조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방세계의 思想조류와 생활방식의 북한내부유입은, 비록 北韓 당국이 미리부터 큰 고민꺼리로 여겨왔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같은 서방세계의 思想조류의 流入으로 야기된 내부적 사상동요와 가치관의 혼란등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취재했던 외국인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선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다. 외국인론인들은 평양에서의 행사 및 행사요원, 평양의 일부 시가지, 그리고 각종 우상숭배 조작상징물 예컨대 金日成生家로 聖域化 된 만경대, 김일성동상, 주체사상탑,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코스인 서해(남포)갑문등 北韓이 허용하는 대상만 볼 수 있었지 일반주민들과의 대화, 농촌이나 평양의 뒷골목 등은 거의 취재할 수가 없었다. 「다시는 북한주최행사는 참관하지 않겠다」고 말한 덴마크 언론인이나 취재방해를 비난한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즈 기자등의 비난은 전체 외국인론인의 공통된 불만이었다.

이같은 제한된 취재만으로도 자동차가 거의 없는 거리 모습과 「40 달러의 월평균 주민소득」과 「1백 5층짜리 호화호텔을 건립하면서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조차 없었다」(NYT), 축전준비 보답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반드시 외국인들이 보는 앞에서 쓰도록」한 사실이나, 일부 관리들도 공공연히 「경제난의 심각성」을 실토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北韓주민들이 가슴에 소중히 달고 다니는 김일성뺨지에, 북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김일성동상과 초상등은 당연히 외국인론 들의 조소꺼리가 됐고, 하다못해 어린이들의 사탕과자에서부터 서해갑문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수령님의 은덕과 현명한 영도」로 칭송하는 우스꽝스러운 우상숭배놀음도 北韓의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중의 하나였다(AFP, NYT, LAT 등). 이와 함께 행사기간중 「꼬마병정」으로 치장한 코흘리개 어린이들이 군대식 행진으로 거리를 누비는 모습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의 커다란 병영 을 연상케 하고, 마침내 「北韓은 세계에 하나 남은 스탈린식 독재국가」라는 결

론을 내린 워싱턴포스트紙의 비판기사는, 北韓이 기대했던 예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北韓당국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北韓의 「인권不在」 폭로비판과 이의 연장선에서 「수령님에 대한 모독」행위들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행사관계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행사의 공식주제는 물론 「反帝연대성」이었다(소련등 많은 참가국들로부터 反帝연대성행사가 이처럼 호화쇼가 된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소련이 지원약속마저 이행치 않아 北韓이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행사의 비공식주제가 바로 「北韓의 인권존중문제」였다. 그러나 「北韓인권존중문제」라는 비공식주제를 무색케 하듯, 13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金日成이 개막연을 하는 도중 덴마크 대표들이 「北韓에도 인권을!」이란 피켓을 흔들며 北韓의 인권탄압을 소리높혀 비판하는가 하면 스웨덴 대표들은 北韓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대표들의 입북거부를 비난하는 깃발을 들고 운동장을 돌았고, 스칸디나비아등 많은 국가대표들이 「우……」하는 야유를 보내는 등 헤프닝이 계속됐던 것이다.

이탈리아 대표들과 노르웨이 대표들은 北韓이 중국당국의 유혈시위진압을 지지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입장할 때부터 중국학생들의 민주화지지 T셔츠, 머리띠처럼에 半旗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들어와 주최요원들을 당황케 했다. 이같은 예상밖의 항의와 비난시위로 金日成연설과 개막식행사는 어수선한 가운데 끝나고 「소란」피운 외국인들은 즉각 체포·추방됐으나 행사기간중 이같은 항의 시위행동은 계속돼 北韓당국을 꽤나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모든 외신들

이 전했다. 즉 소련·헝가리·유고·리비아·노르웨이등 50 여개국 약 2백여명의 대표들이 집회(7.5)을 열고 중국학생들의 민주화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문건을 채택하고, 日本민주청년동맹대표, 홍콩대표들도 이같은 내용의 항의시위를 벌였다. 특히 北韓 여러곳에 설치된 강제수용소(독재대상구역)에 격리수용된 15 만명의 北韓 반체제 인사들이 혹독한 수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나, 정신박약자, 불구자등 수많은 심신장애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사등이 외국인론에 의해 폭로된 사실등은 북한당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록음악과 디스코춤판이 평양한복판에서 벌어지고 마침 「反美 투쟁월간」을 맞아 밤낮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철천지 원수 美帝」의 대표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분명한 서방대표들의 일상 생활을 접한 北韓주민들의 사상적 혼란이나 동요현상에 대한 北韓 당국의 우려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막상 직접 체험하면서 받는 충격은 예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예상과 기대를 벗어난 이같은 부정적 측면의 노출 및 후유증의 대두는 상대적으로 이 행사를 위해 치룬 너무나 많은 출혈과 희생의 무게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北韓내부에 심각한 내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자칫 「통치체제」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이같은 첨예한 내분상태를 완화 내지 영똥한 곳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이미 몇몇 「정치적 희생물」이 부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본래의 의도나 기대와는 달리 이처럼 부정적 측면노출과 예상밖의 후유증을 야기시킨 이번 행사의 실패책임을 두고 北韓 내부에서는 적지않은 흥역을 앓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 일차적인

지탄의 대상은 우선 행사준비를 총괄책임졌던 祝典준비위원장 崔용해 (社勞靑위원장), 행사를 주관했던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그리고 思想담당 黨비서 黃長燁등 일부 고위 실무책임자급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외국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내외통신 651 호 '89.8.4)

政權 創建 41 돌 행사 동향

概 要

- 北韓은 政權 創建 (9.9 절) 41 돌과 관련하여 9.6 의 영화상영주간의 개막에 이어 9.9 에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이종옥 (부주석) 등 黨 · 政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中央報告大會 (2.8 문화회관) 와 慶祝宴會 (인민문화궁전) 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경축행사의 규모를 확대, 진행하였음.
- 특히, 上記 中央報告大會에서 이종옥 (부주석) 은 보고를 통해 北韓 사회주의체제의 優越性을 선전하고 자본주의제도를 批判하면서 文益煥 · 林秀卿 등의 석방을 촉구하였음.

行 事 概 要

◀ 對 內 ▶

- 中央報告大會 (9.9, 「2·8 문화궁전」)
 - 참석 : 오진우, 언형묵, 김영남, 허담 등
 - 이종옥 보고 (별첨요지 참조)
- 慶祝宴會 (9.9, 「인민문화궁전」)
- 平壤市 青年學生夜會 (9.9)
 - 金日成광장, 2·8 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등
- 대성산 및 애국혁명열사능에 화환증정 (9.9)

◀ 對 外 ▶

- 中·蘇 黨·政 祝電
- 駐中 北韓大使 朱昌俊 기자회견(9.8)
- 조총련 中央報告大會(9.8) 및 慶祝宴會(9.8 日本)

分析 및 評價

- 이번 9.9 節 행사는 지난 7月 平壤祝典 이후 2개월만에 진행된 것으로서 「꺅이는 해」(매 5년)가 아닌 행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확대·진행했다는 점이 주목됨.
- ※ 北韓은 9.9 節 및 黨創建 기념행사 등 주요정치집회를 每 5年마다(꺅이는 해) 확대·진행함.
- 한편 李鍾玉의 보고내용중 주목되는 점은
 - 反美自主화와 사회의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가운데 文益煥·林秀卿 석방을 촉구하면서
 - 특히 北韓의 사회주의제도의 優越性 선전과 자본주의제도의 폐해를 집중 批判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특징을 종합해보면
 - 이번 행사는 지난 7月 平壤祝典의 열기를 사회주의제도의 優越性 鼓吹로 승화시키기 위한 정치선전 행사로 진행된 것으로
 - 上記 李鍾玉의 보고가 자본주의제도의 폐해를 비난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平壤祝典에 따른 外來思潮의 汚染克服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李鍾玉 報告內容

◀ 對內問題 ▶

北韓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선전 및 자본주의제도 비판

-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주적 인간의 가장 값높은 삶의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는 우월한 사회제도임. 이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 준 黨과 수령을 위하여 높은 충성심과 애국적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야 함.
- 우리 인민이 누리는 생활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임.
- 우리는 黨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담력을 가지고 1980 년대의 마지막 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제 3 차 7 개년계획 수행에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함.

◀ 對南問題 ▶

反美自主化와 사회의 민주화투쟁 선동, 문익환·임수경 석방촉구

- 지금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지식인, 종교인을 포함,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美帝의 식민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중적 투쟁이 그 어느때 보다도 격렬히 벌어지고 있음.

- 문익환목사와 임수경 학생, 문규현신부를 비롯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금한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함.

◀ 對外問題 ▶

세계 여러지역의 非核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투쟁지지

- 우리는 세계 여러지역에서의 非核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성원하며 세계진보적 인민들과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나라, 불력불가담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

「韓民戰」創立 20 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진행

報告要旨

- 오늘 우리는 南朝鮮에서의 自主, 民主, 統一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우리 革命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南朝鮮 人民들의 참다운 前衛組織인 韓民戰 創立 20 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음.
- 韓民戰은 創立以後 지난 20 年동안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南朝鮮 人民들의 투쟁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隊伍를 組織思想的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음.
- 南朝鮮 당국자들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들과 모든 暴壓機構들을 철폐하여야 하고, 문익환목사를 비롯하여 임수경학생, 문규현신부 등 부당하게 逮捕 投獄한 애국적 人民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함.
- 동시에 南朝鮮에서 「韓民戰」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을 合法化하고 정당·사회단체·개별적 人士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함.
- 南朝鮮의 各界各層 人民들은 反美 反파쇼 救國鬪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미군을 撤去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임.

(中央, '89. 8. 24)

評 價

- 「韓民戰」은 金日成의 指令에 의해 1969年 8月 25日 「統一革命黨」으로 結成된 이후 1985年 7月, 현재의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改稱되었으며, 그후 傘下機構인 「구국의 소리 放送」을 통해 對南 黑色 宣傳・煽動活動을 일삼고 있는 北韓의 地下 組織임.
-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반공정책 비난과 反政府・反體制鬭爭을 선동해 오던 이 단체는 이번 「韓民戰」結成 20周年 紀念 報告會라는 것을 통해 우리 當局의 左傾척결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국내 左傾勢力의 투쟁을 鼓舞 讚揚하고 있음.
- 특히, 금번 報告會를 통해 北韓은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등의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서경원에 대한 석방은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음이 특징적인 바, 그 底意는 北韓이 서경원의 密入北 사실을 공식발표, 우리 當局의 간첩혐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고, 국내 左傾勢力이 서경원의 석방을 요구하지 않은데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앞으로 北韓은 국내 左傾勢力의 보다 활발한 투쟁과 拘束人物의 석방 등 소요를 衝動하기 위해 對南 宣傳・煽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政務院 「지방공업부」 신설

概 要

- 北韓은 政務院에 지방공업부를 신설(7.27)하고 同 지방공업부부장에 前 政務院 화학공업부장 김성구를 임명(8.21)하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을 발표하였음. (중방 8.25)
- ※ 中央人民委員會에서 政務院 委員會와 部の 신설과 폐지를 결정함. (북한헌법 제 7 장 103 조)
- 이로써 政務院은 14 個 委員會, 22 個部, 1 院에서 14 個委員會, 23 個部, 1 院으로 改編됨.

김성구 약력

- '66.2, 우루과이 주재 통상대표부 요원
- '82.1, 남흥청년화학공장 지배인
- '82.2, 최고인민회의 제 7기 대의원
- '84.6, 黨 정무위원회 후보위원
- '85.4, 정무원 화학공업부장

分析 및 評價

- 北韓의 政務院 기구는 주로 경제관계 部署를 중심으로 폐지·통

합·분리·新設·부활의 과정을 되풀이 해오고 있음.

—對內 政治機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政治·사회분야는 強權에 의해 비교적 쉽게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經濟分野는 관련부서의 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경제행정과 경제관리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서 경제부서의 增·改編이 계속됨.

○그간 北韓은 '85.11.19에 개최된 黨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인민위원회의 聯合會議에서 機能類似 部署들에 대한 統·廢合 결정에 따라 政務院 部署들을 統·廢合하여 왔음.

—금속공업부와 第 1,2 기계공업부를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로 統·廢合하고, 화학공업부와 경공업위원회를 화학 및 경공업위원회로, 건설부와 건재공업부를 통합하여 건설·건재 공업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部와 委員會의 統·廢合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露 漏함에 따라 第 8 期 內閣出帆('86.12) 이후에는 統·廢合된 委員會를 또 다시 分離·復活하거나 새로운 部와 委員會를 신설하는 등 政務院의 기구를 재조정하여 기능을 細分·專門化하고 있음.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를 금속공업부와 기계공업부('87.10)로 분리하고, 건설·건재위원회를 건설부와 건재공업부로('88.6), 화학 및 경공업위원회를 화학공업부와 경공업위원회('88.6)로 또다시 분리하였으며

—合營工業部('88.11)와 전자자동차공업위원회('88.12) 都市經營部('89.1)등을 새로이 신설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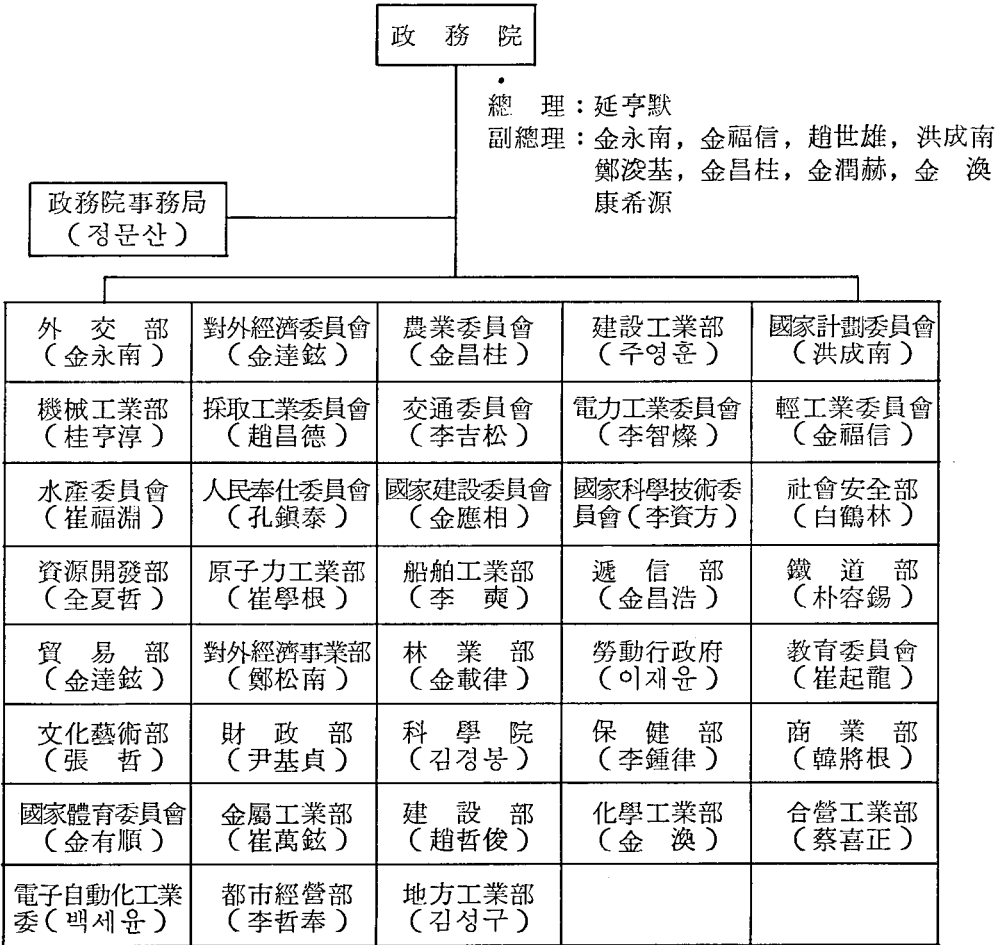
—금번 신설된 지방공업부도 第 4 次 內閣('67.12-'72.12)에 있었던 지방공업성('71.3-'72.12)을 다시 부활한 것으로서

22 統一教育

- 이와같은 地方工業部の 부활·신설은 黨 中央委員會 第6期 16차 全員會議('89.6.7-9)에서 채택된 「輕工業 革命 3個年 計劃」의 집중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政務院 기구 개편으로
- 그간 주민들의 소비품 생산의 대부분을 中·小 規模의 지방산업 공장에서 생산·충당해 온 점등을 감안할 때 주민소비품 增産을 위한 긴급대책 수립의 不可避性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北韓의 政務院 機構



經濟特區 건설추진

- 북한은 최근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中·蘇와의 경계지역에 경제특별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철도역, 대형 아파트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日本의 朝日新聞(7월), 黑龍江省 放送(8.16), 英國의 The Financial Times(최근호), 中國의 東北經濟報(최근호), 朝鮮日報(8.29).

보 도 내 용

- 北韓은 대외경제 개방정책 적극 추진의 일환으로 北韓, 중국, 소련 등 3국의 국경지대인 핫산도(두만강하류 추정)에 경제특별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
- ※ 핫산도: 정확한 位置 不明
- 현재 철도부설공사, 대형아파트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90년中으로 同 경제특구내에 「朝鮮貿易센터」를 완공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북한은 同 경제특구를 「國際商務中心(센터)」으로 발전시키고자 일본(재일교포상공인), 소련, 중국 등의 기업과 합작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분석 . 평가

- 北韓은 최근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의 획기적 증대가 경제개발의 관건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의 확대 문제에 부심하여 왔음.

—제 3차 7개년계획기간중 무역증대목표 기초년도의 3.2배

-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많은 정치·경제적 제약요인들의 작용으로 부진한 실정에 있음.

◀ 대외경제 개방의 부진이유 ▶

- 김정일 승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
- 外債문제
- 경제체제 및 관리체제의 경직성
- 합영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 수출상품의 낮은 국제경쟁력
- 내수시장의 협소 등
- 同 보도상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첫째, 최근 北韓의 경제특구건설에 관한 연이은 외신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송, 평양방송, 로동신문 등 北韓의 대내 선전매체들은 同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경제특구 건설대상지역을 상품교역 및 경제협력이 유리한 동·서해안의 공업지대(신의주, 남포, 청진 등)가 아닌 북부의 중·소 국경지역과 교차하는 미개발지역(두만강 하류)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 (그림 참조)

—세째, 북한은 경제특구건설을 위해 일본(특히 재일교포 상공

인), 소련, 중국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작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이상의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금번 北韓의 두만강하류 경제특구 건설 구상은

一 對外的으로는 北韓의 경제개방의지의 과시를 통해 「合營事業」 積極推進 霧圀氣를 造成하며

一 對內的으로는 북부의 외곽지역을 건설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同 사실의 보도를 통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경제개방과 관련한 對內 북한주민의 정치·경제적 충격 내지 동요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경제개방을 추진하되,

一 주로 在日朝總聯系 商工人 및 연변지역의 在中·蘇 韓人교포(企業所) 등 親北韓僑胞들을 主要 合資優先對象으로 겨냥, 政治的 危險度를 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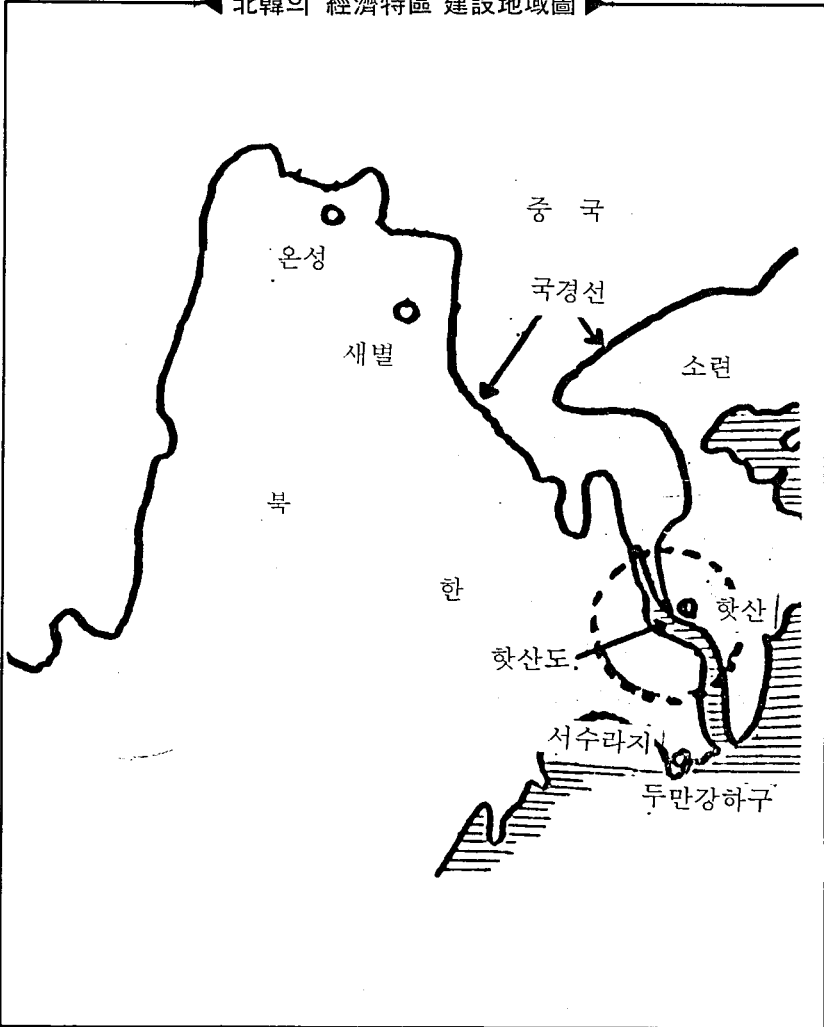
一 변경무역이 암묵적으로 성행하여 온 同지역을 상품교역의 場으로 활성화시키며,

一 나아가 東海北部의 公海路를 이용한 서방제국(한국포함)의 자본조달 및 선진기술도입의 직접 또는 간접적 창구로 활용키 위한 北韓 나름대로의 조심스러운 「실험적 경제개방」조치로 평가됨.

一 그러나 建設對象地域이 中·蘇와의 接境地域임을 감안할 때, 中·蘇와의 事前協議가 있어야 하는 바, 이 점에 대한 歸趨가 주목됨.

◀참고▶

◀北韓의 經濟特區 建設地域圖▶



羅津—清津間 철도 혼합선 공사추진

報 道 內 容

- 羅津—清津間 철도 혼합선 敷設工事が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철도 수송능력을 늘일 데 대한 首領의 敎示와 黨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鎔冶機械化 機動中隊員들과 철도 건설자들은 온갖 險路와 난관을 이악하게 극복하면서 공사를 시작, 近 1 年間에 16 萬 立方미터의 土壤工사와 1 백킬로미터의 철길 늘이기공사, 29 個所의 교량, 15 키로미터의 착굴(터널)작업을 끝냈고, 103 키로미터區間的 전기화공사를 해제끼는 혁신을 일으켰음.
- 앞으로 지휘부 일꾼들은 地方黨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自力 更生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清津—吉州間 混合線 工事に 달라붙어 1990 年末까지 무조건 끝내교야 말 것임.

(中放, '89.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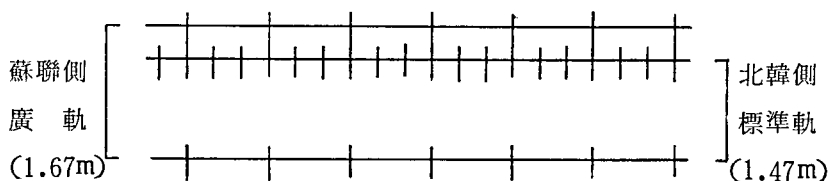
評 價

- 현재 추진중인 羅津—清津間 철도 혼합선공사는 蘇聯의 廣軌鐵道(軌幅 1.67 m)와 北韓의 標準軌道(軌幅 1.47 m)를 동시에 設置, 蘇聯에서 오는 열차가 通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말함.
- 이번의 공사는 지금까지 雄基精油工場, 羅津港까지 운행되던 혼

합선 구간을 淸津까지 延長한 것이며 앞으로 吉州까지 延長할 계획으로 보임.

北韓이 철도 혼합선구간을 延長하는 것은 최근 蘇聯과의 경제·군사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동구공산국가와의 무역거래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자 시베리아철도를 北韓 領土까지 延長하려는 조치임.

◀ 철도 혼합선 軌道 설치 형태 ▶



신의주-유초도간 쇠뿔줄다리 준공

報 道 內 容

- 압록강에 現代의인 쇠뿔줄다리가 건설됐는 바, 金正日은 다리 이름을 「8月9日 줄다리」로 부르도록 했음.
- 신의주시 남만리로부터 유초도 사이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압록강변의 아름다운 풍치와 잘 어울리며 現代의 美感에 맞게 경쾌하고 특색있게 건설됐음.
- 신의주-유초도 사이 쇠뿔줄다리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유초도 人民들의 交通문제가 보다 圓만히 해결되었으며 國境都市 新義州市의 풍치를 한층 더 돋구게 됐음.
- 黨의 은덕이 깃들어 있는 쇠뿔줄다리를 잘 관리 운영하는 한편, 이 일대 압록강반을 유원지로 꾸려 근로자들이 文化・情緒生活을 더 마음껏 누리게 할데 대하여 지적했음.

(中放, '89. 9. 1)

評 價

- 금번 쇠뿔줄다리(현수교)가 架設되었다는 유초도는 신의주와 中國이 마주하는 압록강 下流의 北韓側 섬으로 70餘萬坪의 비옥한 堆積平野가 조성된 水畚地域임.

- 금번 완공된 다리는 路幅 5 m, 길이 1,200 m로 화물자동차, 트랙타 등이 왕래할 수 있어 이 섬의 농업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재 無비자 出入地域으로 지정된 신의주시의 環境美化와 외국인 觀光誘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空軍戰力 강화에 注力

北韓은 지난 8월 20일 空軍節 42주년을 맞아 그들 공군이『한 목숨 바쳐 싸울 불굴의 혁명전사들로 준비돼 있으며 이는 노동당의 자위적 군사노선의 빛나는 승리』라고 역설, 그간 北韓의 공군력이 크게 강화돼 있음을 호언했다.

北韓의 중앙방송은 이날 「하늘초소를 금성철벽으로 지켜온 인민공군」題下의 공군절 기념프로에서 金日成이 47년 8월 20일 최초로 북한공군을 조직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北韓이 공군력증강에 주력, 현재는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특히 金正日이 비행훈련 등을 직접 지휘하는 등으로 공군력강화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北韓공군은 현재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 어떤 역경에서도 임무를 제때 무조건 수행하는 일당백 초병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고 선전함으로써 金正日이 軍의 전투력강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 우리 인민공군은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긴장성을 높이며 어느때든지 적들이 덤벼들면 용감하게 맞받아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과시했는가 하면 그들의 공군이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히 준비돼 있으며 그 어떤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비행술이 고도로 준비돼 있다』고 반복 선전함으로써 공군 전력의 質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北韓의 중앙방송은 22일에도 『우리 공군에 대한 비행훈련을 강

화한 결과 백·천가지의 새로운 전술로서 적을 쳐부실 수 있게 됐으며 비행사들의 전투기능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힘으로써 北韓공군이 實戰에 대비한 비행전술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해 왔음을 드러냈다.

이 방송은 『금년도만 해도 비행사들의 전투기능을 한단계 높이고 부대전투준비를 완성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강조하면서 『공군의 각 부대별로 각종 형식의 비상연습기지를 많이 만들어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폭격사격에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해상과 산악, 각이한 높이로 날아드는 그 어떤 적들도 단매에 격추해버릴 수 있게 준비시켜 놓고 있다』고 호언했다.

또한 『새세대 비행사들의 비행술과 전투기능을 늘이기 위해 비행훈련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해 이는 최근 北韓이 현역비행사들에게 전술훈련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사 후비대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北韓이 공군절 42주년을 계기로 그들 선전기관을 동원한 공군의 전력강화실태선전과 金正日의 공군에 대한 영도력부각선전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北韓공군이 金正日의 지휘·통솔아래서 전력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전술훈련을 통해서 만반의 臨戰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北韓의 空軍節은 金日成이 지난 '47년 8월 20일 최초의 정규비행대를 창설했다는 날로서 지난 72년도부터 당시 그들의 創軍節이었던 「2.8절」과 별도로 공군절을 제정하고 매년 이날을 계기로 金日成·金正日父子의 공군에 대한 영도력부각과 함께 충실한 혁명무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현재 北韓공군은 지난 '84년과 '86년 金日成의 두차례 소련방문을 계기로 해서 지원받은 MIG-23기 등으로 인해 공군력이 크게 증

강했다. 北韓은 지난 '85년 MIG-23기 26대, AN-2 경수송기 52대, MI형 헬기 47대, SA 3 미사일 30기 등을 지원받았으며 87년에는 SU 25 근접지원전투기 10대를 도입하는 한편 소련과 상호 비행대 교환방문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크게 배양시켰다.

지난 85년 5월 소련의 對獨전승 40주년을 계기로 北韓·소련공군의 교환훈련이 실시돼 당시 소련의 MIG-23기 비행중대와 北韓공군비행대가 교환방문·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86년 7월에도 소련극동주둔 공군사령관이 인솔하는 MIG-23기 비행중대와 北韓공군부사령관 박형욱이 인솔하는 비행대가 교환·훈련비행을 실시했다.

이같은 상호교환방문훈련실시와 '8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련군용기의 北韓지역 횡단비행 등은 北·蘇간의 공군협동작전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北韓공군은 소련으로부터의 전투기지원, 그리고 협력체제구축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공군력증강에도 주력해 이미 80년대초 모든 유도탄과 헬기·훈련기 등의 조립 및 모방생산단계를 거쳐 '86년 들어서는 平北 방현에 MIG기·헬기조립 생산공장을 건설해 MIG-21 전투기의 생산 등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北韓공군의 현재 각종 항공기 보유대수는 폭격기는 3개 경폭기연대에 IL-28기 80대, 전투기는 9개연대(지상공격용)에 SU-7 30대, SU-25 10대, MIG-15/17 2백 80대, MIG-19/Q-5 1백대를, 요격기는 12개연대에 MIG-21 1백 60대, MIG-19 60대, MIG-23 4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송기는 10개연대에 AN-2 2백 50대, AN-24 10대, IL-14 5대, IL-18 4대, TU-154B 2대, IL-62 1대를 보유하

고 있고 헬기는 모두 1백 70 대로서 Mi-4기종 40대, Mi-8/-17기종 20대, Huges-300/-500 80대를, 또한 훈련기도 MIG-15 UTI/-19U, UTI/-21 U, IL-28기종등 1백대를 비롯해 CJ-6 30대와 Yak-18 1백 20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Military Balance 88-89년도版 참조).

이같은 北韓의 공군력현황에서는 MIG-23기등 신예전투기를 소련으로부터 신규 추가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형전투기의 퇴역으로 전술기의 보유대수가 종래 8백 40여대에서 8백대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10대의 지상공격용 전투기 SU-25기를 새로이 도입 배치하고 기존 MIG-21기 1백 50대를 1백 60대로, MIG-23기 40대를 46대로 증강시킴으로써 공군전력은 오히려 크게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北韓공군은 최고사령관인 金日成을 정점으로 하는 통합군개념의 총참모장산하에 있으며 공군사령관은 上將 趙明錄, 부사령관 少將 이철환, 비행부사령관 少將 안영국, 정치부사령관 少將 김수현, 정치위원 少將 박용섭·김형봉 등인 것으로 추적되고 있다.

(내외통신 655호, '89. 9. 1)

북경 아시안게임 대비 전력강화 박차

北韓은 내년 가을의「북경아시안게임」을 일년여 앞두고 주요종목에 대한 전력강화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경기종목별 대표자회의를 최근 소집하는 등 전력향상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례행사의 하나인 소위 「인민체력검정월간」(8~9월)을 계기로 궁극적으로 모든 주민을 노동과 국방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작업인 체력검정사업을 전주민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전국체육인 열성자회의」는北韓정권수립 이후 4번째 열린 회의라는 점과 함께 黨·政 고위인물 및 현재北韓의 체육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분야별 책임자급 인물들이 대부분 참석했다는 사실에서 이 회의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체육부에서 당면주요시책의 추진방향선정 및 이의 실천방안토의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 회의는北韓의 가장 큰 체육인행사로 지난'46년 10월에 1차회의를 가진 이후 '69년 11월과 '85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소집된 것이다.

지금까지 열린 3차례 회의에서는 당면한 체육시책실천방향토론과 함께 有功체육인들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한 사기양양과 책임감고취등을 주로 도모해 왔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정무원총리 鄭浚基, 국가체육위원장 金有順 등 黨·政 고위인물들과 체육위부위원장 박명철, 조총련체육대표단 등

33명의 체육 각 분야별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해 체육사업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대책과, '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해 黨중앙위에 바치는 「맹세문」도 채택했다고 北韓방송이 전했다.

北韓방송들은 특히 「북경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육상·축구·탁구·권투·레슬링·유도·역도등 주요종목에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론됐다고 전했다. 「전력강화秘策」의 대외노출을 우려한 듯 金有順의 첫날 보고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실제로 「북경아시안게임」에서 훌륭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각 종목별로 논의됐으며 체육인들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힌 점만으로도 북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는 「북경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전례없이 전력강화대책에 부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각종 국제규모경기대회에서의 南北韓대결에서나 객관적인 전력평가에서 北韓은 韓國에 비해 종합적으로는 열세에 놓여 있다. 특히 남북한체제경쟁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고 이번 北京대회는 「형제나라」에서 열린다는 유리한 환경조건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한국을 눌러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체육관계자들의 분발과 책임감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종목별 또는 종합전력에서 對韓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집중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메달박스인 육상종목을 비롯해 전통적인 강세종목인 권투·레슬링·유도등 격투기종목과 축구·탁구·역도등 유망종목, 그리고 韓國에 비해

열세한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전력강화대책들을 마련, 이의 강력한 실천을 독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연례행사로 치르는 올해 인민체력검정월간(8~9월)을 맞아 北韓은 지난 8월 6일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체육행사 및 체력검정사업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체력과 체육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韓國의 「체력장」과 유사한 이 체력검정사업은 각 시·군 단위로 2개월간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각 시·군의 각급학교와 공장·기업소 별로 참가해 턱걸이·달리기·너비뛰기·수류탄던지기·줄타고 오르기등 10여 종목에 걸쳐 단체별 성적을 채점하는 방법으로 검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체육위원회에서 파견한 판정원이 종목별로 채점, 성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별해 포상(모범체육郡청호등)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단체는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재검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北韓이 이같은 체력검정사업을 해마다 실시('48년부터 매년 9~10월에 하다가 '87년부터 8~9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함으로써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준비시키기 위한 균중적인 체육활동의 강화발전』(金有順 개막식보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검정대상은 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며 검정내용도 기초체력의 측정정도이다.

그러나 金有順의 보고내용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검정대상인 근로자 및 학생들의 기본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노동능력 및 직격여부 판단, 그리고 노동총량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노동력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요공급체계를 확립하

33명의 체육 각 분야별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해 체육사업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대책과, '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해 黨중앙위에 바치는 「맹세문」도 채택했다고 北韓방송이 전했다.

北韓방송들은 특히 「북경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육상·축구·탁구·권투·레슬링·유도·역도등 주요종목에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론됐다고 전했다. 「전력강화秘策」의 대외노출을 우려한 듯 金有順의 첫날 보고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실제로 「북경아시안게임」에서 훌륭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각 종목별로 논의됐으며 체육인들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힌 점만으로도 북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는 「북경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전례없이 전력강화대책에 부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각종 국제규모경기대회에서의 南北韓대결에서나 객관적인 전력평가에서 北韓은 韓國에 비해 종합적으로는 열세에 놓여 있다. 특히 남북한체제경쟁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고 이번 北京대회는 「형제나라」에서 열린다는 유리한 환경조건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한국을 눌러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체육관계자들의 분발과 책임감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종목별 또는 종합전력에서 對韓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집중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메달박스인 육상종목을 비롯해 전통적인 강세종목인 권투·레슬링·유도등 격투기종목과 축구·탁구·역도등 유망종목, 그리고 韓國에 비해

열세한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전력강화대책들을 마련, 이의 강력한 실천을 독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연례행사로 치르는 올해 인민체력검정월간(8~9월)을 맞아 北韓은 지난 8월 6일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체육행사 및 체력검정사업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체력과 체육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韓國의 「체력장」과 유사한 이 체력검정사업은 각 시·군 단위로 2개월간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각 시·군의 각급학교와 공장·기업소 별로 참가해 턱걸이·달리기·너비뛰기·수류탄던지기·줄타고 오르기등 10여 종목에 걸쳐 단체별 성적을 채점하는 방법으로 검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체육위원회에서 파견한 판정원이 종목별로 채점, 성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별해 포상(모범체육郡청호등)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단체는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재검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北韓이 이같은 체력검정사업을 해마다 실시('48년부터 매년 9~10월에 하다가 '87년부터 8~9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함으로써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준비시키기 위한 균중적인 체육활동의 강화발전』(金有順 개막식보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검정대상은 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며 검정내용도 기초체력의 측정정도이다.

그러나 金有順의 보고내용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검정대상인 근로자 및 학생들의 기본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노동능력 및 적격여부 판단, 그리고 노동총량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노동력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요공급체계를 확립하

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마다 학생·근로자들의 기본체력과 노동력여부, 노동의 적성 등을 철저히 파악, 중노동·경노동·정신노동등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공급 배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방에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이미 조사된 개인별 기초체력검정 및 적성검사자료를 이용해 일단 유사시 최단시일내에 전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이같은 사업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철저한 인원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제한등 통제수단으로도 악용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학생들의 기초체력검정을 실시함으로써 각 체육종목별 신인유망선수를 조기발굴한다던가, 청장년계층에서 의외로 숨은 유망주를 찾아내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조기발굴된 어린 유망선수들은 별도로 수용해 군대식의 엄한 훈련을 집중실시해 공산주의식 스포츠 기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한편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동안 평양에서는 소련·동독·루마니아 등 공산권 10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주의국가 국방체육기관장회의」가 열려 소위 국방체육수준 향상을 위한 각국간의 협력강화문제를 논의했다.

공산권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국방체육경기는 「국방·스포츠·노동」등 3대요소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낙하산경기·군사3종경기(사격·수류탄던지기·장애물극복)·남녀무선통신경기 등인데 모두가 유사시 즉각 실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北韓은 전통적으로 이 국방체육을 강화, 공산권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내외통신 655호, '89. 9. 1)

對南動向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면거부
- 노동신문 論評 내용 분석 -
- 최근 北韓의 對南宗教界 선동과 평양복음화대회
 - 「祖統」, 통일관련 白書발표
 - 「民民戰」, 당면투쟁방향제시

對南動向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전면거부

- 노동신문 論評 내용분석 -

北韓은 大統領의 國會 特別演說을 통해 提示(9.11)된 새 統一方案에 대해 9.14 字 勞動新聞 論評을 통해 이를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개 朝鮮을 추구하는 제 2의 分열방안”으로 非難하였음.

內容要旨

- 가. 南北 閣僚會議과 南北頂上會議는 分裂·固着의 制度化
- 『두개 國家 存在를 합법화하고 공식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轉換시키자는 것이며 共同體憲章이라는 것으로 法的으로 固着시켜 서로 남남으로 살자는 것임』
 - 이는 『各黨 各派 各界各層의 의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대립되는 두 當局사이의 協議機構에 불과함』
 - 『이러한 기구들은 交流協力問題나 다룰 수 있을 뿐 統一問題를 民族的 次元에서 해결할 수 없음』
- 나. 南北間의 신뢰구축은 주한미군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가 선행되어야 가능
- 『信賴를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美帝侵略軍을 撤去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그의 干涉과 侵略을 排除하는데 있음』

- 또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共同體와 聯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交流와 協力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 다. 統一憲法制定 주장은 한반도의 정치현실을 外面한 空論에 不過
- 『統一憲法을 만들어야 하며 총선거를 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은 統一問題 解決을 무한정 끌고 영원히 分裂되어 살자는 것임』
 - 『과연 南北 雙方사이에 다른 한 제도를 없애버릴 것을 예견하는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가?』
- 라. 統一國家의 實現方途는 聯邦制 實施
- 『고려민주연방제 공화국 창립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온민족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方途임.』
- 마. 北韓에 대한 인권·개방주장은 반공통일에 대한 환상의 표현
- 『人權과 自由니, 開放과 變化니 하면서 統一의 여건을 조성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反共·勝共統一의 幻想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分析 및 評價

- 9.14 字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형식을 통해 발표된 새 統一方案에 대한 北韓의 반응은
 - 9.12의 民民戰 放送에 나온 北韓의 공식반응으로 「第2의 分裂方案」이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새 統一方案에서 새롭게 제시된 중간단계 설정에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北韓이 이와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던 새 統一方案에서 정치·군사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의면하면서 統一의 중간단계 설정을 「反統一의 자세」로 罵倒하는 것은
 - 새 統一方案이 가지는 주요 특징인 타당성, 실현가능성, 합리성의 稀釋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금번 새 統一方案에 대한 北側 반응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北側의 대화자세를 평가해 보면
 - 최근 일련의 北側의 대화제의가 실질적인 대화보다는 對南對話攻勢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 既 예정된 남북대화에 대한 거부보다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의('82.1.22) 직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名義로 제의('82.2.10)된 바 있는 「南北政治人 聯合會議」와 같은 정치회담의 再提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分析됨.

◀참고▶

中 · 蘇 의 反應

1. 中國反應 : 事實報道 및 論評 (북경방송, 9.12)

- “ 그의 이 방안은 조선북측이 발기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형식으로 통일을 실현할데 관한 방안과 대립되는 것임.”
- “ 읍서버들은 노○○의 제의는 남조선의 현행 사회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선반도에 강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북측이 견지하고 있는 남북 쌍방이 지금의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누구도 상대측을 다치지 않을 데 관한 통일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음.”

2. 蘇聯反應 : 事實報道, 平民黨 論評 引用 (모스크바방송, 9.12)

- “ 노태우 대통령은 두국가 수반 이사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했음.”
- “ 동시에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와 그리고 각측에서 10 명의 외상들이 참가하는 내각을 조직할 것을 제의했음 ”
- “ 남조선 대통령은 조선반도를 돌로 나눈 현 비무장지대에 평화지대를 창설할 것을 호소했음.”
- “ 가장 큰 야당인 평민당은 대통령이 말로서만이 통일을 주장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대통령의 개혁안을 반박했습니다.”

최근 北韓의 對南宗教界 선동과 평양복음화 대회

1. 최근 北韓의 對南宗教界 煽動動向

- 최근 北韓은 1986.9.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선으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한 기독교 대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국내 一部教團과 해외교포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對北韓 福音宣教 분위기에 편승, 北韓內의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의 新設·整備와 함께 남북종교인회담을 제의('89.6.2)하는 등 남북한 종교인들의 교류를 앞세운 對南宗教界 선동공세를 적극화하고 있음.
 - 1988.6.30 朝鮮天主敎人協會(위원장: 장재철)를 결성하고 10월에는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춘성당을 신축
 - 1989.3.16 朝鮮天主敎會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을 鄭信赫에서 崔德新(조국평화통일부위원장)으로 교체한데 이어 5.30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최덕신)를 결성
- 한편 北韓은 文益煥 牧師 및 林秀卿·文圭鉉事件과 관련, 이들의 행동을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찬양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위한 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음.
 - '89.4.4 조선기독교도연맹, 文益煥牧師 탄압규탄성명 발표
 - '89.8.22 조선천주교인협회, 林秀卿·文圭鉉 탄압규탄성명 발표

- '89.8.25 조선기독교도연맹, 林秀卿·文圭鉉 탄압규탄성명 발표

2. 基督教 平壤福音化大會 評價

- 강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 과 김의환 (LA 韓人教會牧師) 이 각각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 및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장 자격으로 署名 ('89.8.25) 한 실무접촉 합의서는 安炳洙(祖平統書記局長)와 朴英秀(祖平統書記局副局長)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同大會 초청장 발급 청구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실은 김의환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간의 合意書임.
- 同 合意書는 일견 쌍방의 주장을 수용한 듯이 포장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89.8.21 字 복음화대회 許容立場 表明의 조선기독교도연맹중앙위의 성명을 再確認하는 것으로 北韓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大會理念 第2項에서 「民族內部的 對決排擊」과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강조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철폐주장임.
- 다음으로 第3項에서는 「나라의 分裂을 막고 하나의 祖國으로의 統一指向」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바, 이는 南北韓 유엔동시가입 및 교차승인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第4項과 大會目的에서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3大原則 堅持」를 강조하고 있으나, 北韓이 주장하는 「자주」란 주한미군철수를 「平和」란 우리의 안보역량 약화를, 그리고 「民族大團結」이란 공산활동의 합법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는

北韓의 통일방안 지지를 의미하는 것임.

- 그리고 第5項에서는 「어느 일방의 理念과 體制를 非難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7.7特別宣言」의 기본정신에 따라 '88.7.19 0時를 기해 前方地域에서의 對北非難放送을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반면 北韓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對南非難放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二面性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임.
- 또한 第6項에서 「南과 北, 海外 어느측 어느敎團과 敎派에도 不利益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바, 이는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됨.

3. 結 論

- 금번 開催('89.10.17-27)가 屢懸된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는 종래 北韓이 주장해 온 「大民族會議」의 變種인 바, 대회 참가 대상에 非基督教信者를 포함시키고 있는 點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음.
- 北韓은 同 복음화 대회를 汎民族大會('89.9.5 祖平統 공개서한을 통해 '90.8.15 開催 주장)의 예비대회로서의 성격을 부여, 汎民族大會 개최분위기 조성의 정치적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 정부 당국을 배제한채 복음화대회 준비위측만을 창구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와 종교계간의 대립·갈등 심화와 함께 文益煥牧師 拘束의 名分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와같은 非當局間的 접촉확대를 통해 기존의 당국간 대화를 무실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 개최 합의서

1. 대회목적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촉진하는데 있다.

2. 대회이념

- (1) 사랑과 화해, 일체의 복음을 선교한다.
- (2) 민족내부의 대결을 반대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한다.
- (3) 나라의 분열을 막고 하나의 祖國으로의 統一을 지향한다.
- (4)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견지한다.
- (5) 어느 일방의 이념과 체제를 비난하지 않는다.
- (6) 대회는 北과南 해외의 어느측 어느교단과 교파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대회명칭 :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로 한다.

4. 대회시일 : 1989. 10. 17일부터 27일로 한다.

5. 대회참가 성원 및 규모

- (1) 대회는 누구나 北과南 해외의 모든 教團 教派들을 다 참가시

킨다.

- (2) 대회에는 2,200여명 (해외교포 기독교신자·불신자 1,000명, 북쪽 기독교신자·불신자 1,000명, 남쪽 기독교신자 200명) 이 참가한다.
- (3) 대회참가자들에 대한 초청장 발급은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의 협의밑에 하며 해외와 南에서 대회참가하는 신자 불신자들의 명단은 대회가 열리기 20일전까지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4) 북측은 南에서 오는 대표들의 관문점 통과에 따른 모든 편의와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6. 대회장소

- (1) 낮장소는 평양봉수교회와 칠골교회로 하며 밤장소는 인민문화 궁전으로 한다.
- (2) 수양회 장소는 금강산으로 한다.

7. 대회준비기구

대회의 성과적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대회준비위원회, 대회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大會長을 선출한다. 대회준비위원회, 대회실행위원회는 모든 教團 教派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원칙에서 구성하며 北과南, 해외교포 기독교신자 대표들이 같이 참가한다. 명예회장은 임동선 목사님, 강영섭 목사님으로 하며 大會長은 김의환 목사로 한다.

8. 대회재정

조선경내에서 대회장 이용비, 운수수단비, 관람료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부담한다.

9. 차기대회

차기대회는 가급적으로 1990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조선기독교도연맹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들과 해외 교포대표들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가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것을 일치하게 결의하였다.

조선기독교도중앙위원회 위원장 강 영 섭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 대회장 김 의 환

◀ 참고 2 ▶

北韓의 宗教現況

區分	團 體	信徒數	教職者	宗教施設	備 考
基督教	朝鮮基督教聯盟 (위원장: 강영섭)	1萬餘名	○ 牧師: 20名 ○ 傳道師, 長老: 300名	○ '88.11. 봉수教會完工 * 500個의 家庭教會	○ '89.3 復活節禮拜 (봉수教會) ○ '89.4 南北教會 雙方協議會 開催 (美國워싱턴)
天主教	朝鮮天主教人協會 (위원장: 장재철) * '88.6 結成	800餘名		○ '88.10 長春聖堂完工	
佛 教	朝鮮佛教徒聯盟 (위원장: 박태호)		○ 僧侶: 300名	○ 寺刹: 60餘個	○ '89.1 成道節紀念法會 (龍華寺 등) ○ '89.3 열반절 紀念法會 (普賢寺 등) ○ '89.8 祖國統一 祈願法會 (金剛山 表訓寺 등)
天道教	朝鮮天道教中央指導委員會 (위원장: 최덕신)				○ '89.4 天道教創道 129돌 天日節 行事進行
* '89.5 朝鮮宗敎人協議會 (회장: 최덕신) 結成					

「祖統」, 統一關聯 白書 發表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許燦)는 8月8日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 책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라는 명목하에 「白書」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分裂主義 政策 追求」와 관련하여 『7.7 宣言은 ……歷代의 분열주의 방안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며, 段階論에 기초한 交流와 交叉接觸과 交叉承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이라는 것도 來往과 접촉의 문을 더욱 닫아매기 위한 封鎖措置』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南北對話 妨害」와 관련해서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훈련은 ……同族間의 대화는 외면하고 外勢와 함께 대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며 『文牧師, 全民聯 간부 구속, 全大協 간부 검거 지령 등의 탄압행위는 대화와 統一의 길에 遮斷棒을 내리는 계획적 책동』이라고 우리측에 대화중단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였다.

셋째, 「民間級 對話 妨害와 當局의 次元 對話 延期」와 관련해서는 『汎民族大會 예비회담, 작가회의, 학생회담, 역사학자회담, 종교인회담 등 北과 南의 各界 인사들, 단체들 사이의 접촉의 길

을 원천 봉쇄하고 民間級 對話를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고 하면서 『……統一을 위해 北과 南의 각계각층 인민들 사이에 民間級 對話를 발전시켜야 하며, 當局의 次元의 對話들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白書」는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할 수 있다.

첫째, 「7.7宣言」과 남북 교류·협력지침에 대한 중점 비판을 통해 政府 統一政策의 立地를 약화시킴은 물론,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不法 密入北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남북대화 延期등 對北 措置들을 대화단절로 국내의 사회에 선전함으로써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셋째, 北韓側은 密入北者들을 통일전선전술에 이용하려고 정치공작을 추진하였으나 이들의 구속으로 인해 북한의 企圖(上層 및 下層 통일전선전술)가 드러남으로써 그들의 입장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우리 政府를 「統一勢力 抑壓」으로 逆宣傳하고 있다.

네째, 同 白書는 「平壤祝典」의 여세를 몰아 외교관계의 확장을 적극화하고, 對美關係 개선을 서두르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는바,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側을 「反統一勢力」으로 罵倒하여 상대적으로 北韓側의 地位 格上을 노리는 계산된 전략전술이 基底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民戰」, 당면투쟁방향 제시

北韓은 「한국 사회변혁운동에서의 주공방향」이라는 題下의 「民戰」放送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學習을 통해 당면 투쟁의 주 방향을 反美自主化 운동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煽 動 要 旨

- 한국변혁운동에서의 주공방향은 미국 침략자들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리는 것입니다. 韓國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은 美國 침략자들에게 투쟁의 주되는 예봉을 돌려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때에만 민족적 압박과 파쇼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현시기 美國 침략자들에게 주공을 돌린다는 것은 反美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할 때까지 변혁운동의 전략단계의 전기간 일관하게 그리고 동요없이 공격방향을 견지하며,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계급 계층들의 투쟁과 여러 부문별 운동을 언제나 反美투쟁과 결합시키고 그것을 주선으로 장악하고 나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운동 세력권 내에서는 이 주공방향과 관련해서 견해상 차이점

이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한국 변혁운동에서 군부독재정권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한편으로 주적인 미국에 대한 공세를 약화시키는 右傾的 傾向으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는 좌경적 傾向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 한국의 애국민중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미국 침략세력을 추방하고 그 식민지 통치체제를 청산하여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自主·民主·統一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금번 운동권 대상의 學習에서 北韓은 한편으로는 운동권 一部の 對政府鬭爭運動의 부적실성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쟁의 주공격 목표를 外勢의 追放에 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권에 대한 투쟁목표의 제시는 2학기 들어 운동권 내부의 노선투쟁으로 인한 분열을 방지하고 鬭爭力量을 결집시킴으로써 韓美間의 현안문제인 한미통상, 농축산물 수입개방등을 쟁점화하여 노동자, 농민들과의 효율적인 連帶鬭爭을 기도하고, 주한미군철수, 非核地帶化, 작전지휘권이양, 군축문제등을 부각시키려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對 外 動 向

- 외교부대변인, UN 가입문제관련 성명 발표
 - 對中國관계 긴밀화에 주력
 - 비동맹권 대상 순방외교전개
- 리비아혁명 기념행사에 고위정부대표단 파견

對外動向

외교부 대변인 UN가입문제 성명발표

報 道 內 容

- 南朝鮮 當局者들은 최근 南朝鮮만이라도 유엔에 加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나라들에 特使, 使節團까지 파견하여 유엔 단독가입을 구걸하고 있음.
- 南朝鮮 當局이 美國의 두개朝鮮 政策에 따라 유엔 동시가입론의 變種인 유엔 단독가입론을 떠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을 완전히 외면한 엄청난 상식밖의 행동임.
- 朝鮮의 유엔가입문제는 민족의 生死存亡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서 統一과 직결시켜 考察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므로 우리는 統一指向的인 온 민족의 한결같은 念願으로부터 출발하여 聯邦制에 의한 統一이 실현된 다음 하나의 國號와 하나의 議席을 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始終一貫 堅持하고 있음.
- 南朝鮮 當局者들이 유엔가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족반역행위로서 나라의 분열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는 엄청난 후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
- 南朝鮮의 유엔가입 책동을 부추기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은 우

리 민족내부의 문제에 대한 간섭이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統一實現에 제동을 거는 反動的 행위임.

(中放, '89.8.21)

評 價

- 北韓은 매년 유엔총회 직전에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우리 政府의 유엔가입 지지활동을 전개해 왔는 바, 이번 聲明도 第 44 次 유엔총회를 앞두고 취해진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北韓은 우리 政府의 「유엔同時加入提議」(73.6)에 대해 「두개朝鮮策略」으로 매도, 이를 전면 거부한 이래 단독 또는 동시유엔가입을 「永久分裂策動」으로 誹謗하면서, 「統一後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해 왔음.
- 이번 聲明에서 北韓이 『南朝鮮의 유엔가입을 부추기거나 동조하는 것은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이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통일실현에 制動을 거는 反動的 行爲』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근 동구 공산권 및 제 3 세계 국가들의 南北韓 유엔동시가입 지지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對中國관계 긴밀화에 주력

北韓은 지난 6월 北京등지에서 있었던 민주화시위에 대한 中國 정부의 무력진압을 전폭 지지하는등 中國에 대한 우호적입장을 표명한 것을 위시하여 고위대표단 교류를 빈번히 하는등 최근들어 전통적인 친선유대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8월 25일 軍참모총장 崔光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中國에 보내 軍部지도자들을 비롯해 黨·政수뇌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으며 中國軍부대를 시찰하는 등으로 中國과의 군사협력 강화발전과 함께 쌍방지도자들간의 친선우의를 다짐했다.

北韓군사대표단은 25일 北京도착후 中國軍총참모장 지호전등의 영접을 받았으며 이어 雙方군사회담에 참석했다.

雙方군사회담에는 北韓측에서 崔光을 비롯해 駐中대사 주창준등이 中國측은 지호전과 부총참모장 서해자등이 참가했으며 이자리에서는 상호군대간 친선협조관계문제협의를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만 전해지고 있다(中央방송). 또한 崔光일행은 이날 中國軍총참모장 지호전주재로 개최된 환영연회에 참석, 두나라軍部지도자들간의 상호친선유대를 다지는 연설을했다.

이 자리에서 中國軍총참모장 지호전은 이번 北韓군사대표단 방문을 『雙方군대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

키는데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北韓과의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崔光일행은 中國수뇌들과도 체류기간중 일련의 회동을 가졌는데 26일 국방부장 奏基偉, 30일 中國국가주석 楊尙昆·黨총서기 江澤民등과 만나 金日成이 이들에게 전하는 인사와 함께 상호친선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崔光일행은 中國국가주석 楊尙昆으로부터 『中·朝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것으로서 매우 공고하며 어떤 정황에서도 부단히 발전되고 대대로 전해질 것을 확신한다』는 등으로 중국의 北韓과의 변함없는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재확인했다.

특히 楊은 이 자리를 빌어 北韓측이 지난 6월 北京민주화시위에 대한 中國정부의 무력진압을 지지해 준데 대해서 사의를 전달하면서 『金日成주석의 통일노선을 시종일관 지지하고 있다』고 北韓지지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崔光일행은 이날 中國黨서기 江澤民과도 만나 그로부터 中國측의 對北지지입장을 확인하고 상호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자리에서 江澤民은 지난 6월의 中國폭란에서 얻은 교훈을 언급, 中國은 『앞으로 부르조아자유화를 건결히 반대하고 黨의 건설을 반대하며 전체인민들의 사상교양을 틀어 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中國이 개혁·개방정책을 제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北韓측의 中國정부지지입장에 사의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崔光은 『중국이 반혁명폭란을 평정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北韓·中國간의 우호협력증진을 내용으로 한 金日成의 인사를 전달했다.

한편 崔光은 체류기간중 軍부대시찰활동을 펼쳤는데 26일 中國 軍부총참모장 서해자의 안내로 北京軍區를 방문, 기갑부대의 전술 훈련과 함께 軍총참모부 지휘자동화연구개발센터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7~29일간은 지방군부대들을 참관했는데 MIG-21기와 미사일생산공장이 위치한 成都軍區를 비롯해 靑島북해함대기지·서창 위성발사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崔光일행의 中國방문에서 협의된 北韓·中國간의 군사협력 내용은 일체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崔光의 軍부대시찰, 그리고 中國수뇌들과의 일련의 회동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미루어볼 때 北京사태이후 권력개편에 따른 中國의 新지도부와 친선우호 증진에 역점을 두면서 雙方군대간의 지속적인 발전강화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國측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야기된 사회혼란의 경험을 교훈으로 쌍방간 이념적 결속을 더욱 강화하며 이에따른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北韓·中國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이자방일행도 8月初 北韓·中國간의 과학 기술협조위원회(29차) 참가를 목적으로 中國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상호과학기술분야의 교류증진과 함께 中國의 정세변화에 따른 향후 협력관계발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관측된다.

雙方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매년 정례협력회의를 통해 기술 및 응용과학분야·상업기술협력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자방의 방문에서도 中國과학기술위원회 方毅간에

향후 과학기술발전 및 협조문제를 다루고 지난해 합의된바 있는 기계·금속·동력·경공업·농업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행을 점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방이 中國체류기간중 국무원총리 李鵬등과 만남에서 상호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다짐하는등 정치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등으로 미루어 이번 그의 中國방문이 北京시위로 인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雙方의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이념적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큰 비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黨국제부장 김용순일행도 8月初 中國黨대외연락부 초청으로 北京을 방문, 黨간 유대와 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韓黨국제부와 中國黨대외연락부간에는 매년 1~2회의 상호대표단(부부장급)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지난해 7년만에 黨국제부장자격으로 玄峻極이 방문해 쌍방관계의 친선강화가 상호입장임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번 金의 中國방문에서는 특히 中國黨총서기 江澤民과 만난 자리에서 中國정부의 6월北京민주화시위무력진압에 대한 北韓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雙方우호협력관계의 발전다짐과 상호지지입장을 거듭 다짐했다.

이같은 최근 北韓의 각종고위대표단의 中國방문동향에서 볼수있는 것은 北韓이 지난 6월 北京의 민주화시위를 무력진압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면서 雙方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中國의 새로운 지도자들과 우호증진을

다지면서 北韓・中國간의 정치・군사・경제적 결속관계를 과시한 점이 주목된다.

(내외통신 656 호, '89.9.8)

비동맹권대상 순방외교전개

제 9 차비동맹정상회의가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지난 9.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비동맹권국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순방외교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중순경부터 시작된 이 순방외교활동은 비동맹정상회의 개막직전인 8월하순경까지 계속됐다. 이기간동안 북한은 黨·政고위인물들을 책임자로한 7개대표단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비동맹권 16개국을 순방케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일먼저 정무원부총리 鄭浚基를 단장으로한 정무원대표단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0일동안 짐바브웨와 모잠비크를 방문, 방문국들과의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對北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역시 정무원부총리 趙世雄을 단장으로한 정무원대표단이 앙골라와 콩고를(7.21~8.17), 경제정책위원장 尹基福이 남예멘과 이집트·이디오피아를(7.26~8.11), 같은 기간에 외교부부부장 金龍泳이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각각 순방하고 돌아왔다.

또한 외교부부부장 金亨律이 이끄는 외교대표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1개월동안 세네갈·시에라레온·가봉·카

메론·중앙아등 서남아프리카 5개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밖에 부주석 李鍾玉이 7월중순에 중남미 니카라과를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 또다시 리비아 국경절기념행사 참가차 이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떠난 것으로 북한방송들이 전했다.

북한의 이번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순방외교활동은 올가을 유엔총회(44차)를 앞두고 특히 시기적으로 비동맹정상회의의 직전에 집중적으로 전개됐다는 점만으로도 그 목적이 유엔총회와 비동맹정상회의를 앞둔 외교로비활동에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들어 비동맹운동의 理念的 퇴색과 경제·외교적 실리추구경향, 그리고 비동맹권내부의 일부 지역분쟁등에 따른 이해관계의 첨예화 등에 편승해 비동맹권내부의 갈등과 분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추세에 있다. 이번 제9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미 그 같은 갈등과 마찰조짐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외신보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北韓이 이번에 집중순방외교활동을 전개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비동맹권국가들의 공통된 성향은, 앞서의 경제·외교적 실리추구에로의 변화와 함께 특히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일방적인 對北 편향태도에서 탈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의 집중순방외교활동과도 밀접히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순방대상국들의 대부분이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南北韓 당사자간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희망하는 당사자주의적 원칙론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회원국의 주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등 비동맹운동의 원칙에 입각해 韓國의 비

동맹참여문제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과거 北韓지지 일변도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실제로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국이자 의장國인 유고가 지난 8월 1일 작성한 정상회의 최종선언문 초안에는 지금까지 관례처럼 삽입돼오던 「한반도조항」이 빠져 있음이 밝혀지는가 하면 일부 비동맹국가들에 의해 비동맹참여(옵저버 자격으로)문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비동맹권내부의 기류가 이처럼 北韓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 44차유엔총회에서 韓國의 단독가입안 제출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北韓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北韓은 비동맹정상회의 개최직전에 이같은 순방외교를 전개, 방문대상국들과 실무접촉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주장등 北韓의 통일방안을 역설하는 가운데 정상회의 최종선언문의 초안에서 빠진 그같은 내용의 「한반도 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호소한 것으로 北韓방송들이 전했다. 이와함께 韓國의 참여저지에 대해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단독가입안제출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단독 가입이 남북분단을 영구화한다는 궤변과 함께 「고려연방제」로 통일한다음 남북한이 동시가입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단독가입 반대를 호소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北韓의 이같은 집요한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순방대상국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南·北韓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

면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순방외교 활동에서는 별다른 성과는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순방외교의 성과여부는 비동맹정상회의와 올 가을 유엔총회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부주석 李鍾玉이 지난 7월중순 중남미의 니카라과를 방문했는데 표면적인 목적은 이 나라 혁명 10주년기념행사(7.19) 축하사절 성격을 띠고 있으나 니카라과가 서울올림픽에 불참한 대신 지난 7월 평양축전에는 130여명의 대규모대표단을 파견, 친선협력관계를 과시해준데 대한 사의표명과 함께 역시 비동맹정상회의·유엔총회등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다짐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李鍾玉은 곧 이어 북한정부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리비아혁명20주년행사에도 참석했는데 李의 이번 리비아방문에는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北韓과 리비아는 지금까지 反帝·反美공동투쟁이란 명분아래 정치·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따라서 리비아는 北韓의 최대 해외건설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韓國의 리비아 경제건설진출이 급신장하는 반면 北韓의 건설진출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단일공사로는 최대규모라는 리비아 수로건설 1, 2 차공사를 모두 韓國의 단일기업이 수주 또는 건설함에 따라 韓國의 건설능력이 세계수준임이 입증된 반면 北韓의 矮小·열세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라 리비아라는 점에서 이번 李鍾玉의 리비아방문은 외교적 협력뿐

72 統一教育

아니라 이같은 경제협력에서의 균열방지에도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통신 656 호 , '89.9.8)

리비아 혁명기념 행사에 고위정부 대표단 파견

報 道 內 容

- 9月1日 리비아 革命節 20돌 행사에 참가할 우리나라 정부대표단(團長: 이종욱 副主席)이 28日 平壤을 출발했음.
(中放, '89.8.28)

評 價

- 北韓은 리비아와 '74.1. 국교를 수립한 이래 리비아의 反帝·反美 性向에 同調하는 한편, 쌍방 고위급 인사교류 등에 의한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최근 北韓은 그들의 최대 海外 建設市場인 리비아에서의 건설공사 불이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상호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임.
 - 이번 北韓의 고위 정부대표단 파견은 리비아가 革命記念 20돌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랍·아프리카지역을 비롯한 30여개국의 首腦級 人士를 초치한데 따른 것임.
- ※ 리비아革命 10돌(79年) 行事時 공진대 정무원 부총리 파견

- 北韓은 이번 행사 참석을 계기로
 - 北韓 - 리비아間의 유대 관계를 內外에 誇示하고
 - 北韓의 건설공사 불이행에 따른 쌍방 懸案妥結에 주력하면서 韓國·리비아間의 경제협력 관계를 견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第9次 非同盟頂上會議(9.4-7)를 겨냥, 同行事に 참석하는 아랍·아프리카지역 30여개 국가 首腦級人士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北韓 立場 支持交渉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主 要 動 向 日 誌

(8 月 ~ 9 月)

日 字	動 向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福信 (부총리) 蘇 經公업委 부위원장 알리나스 아도마이디스 일행과 회동 ● 桂應泰 (당비서) 양골라국가안전장관 淸디빠이야마 일행과 회동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몽고인민혁명당비서 램지키네 물론잡스 일행과 접견. ● 楊亨燮, 이란 · 파키스탄, 소련 방문후 귀환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基福 (중앙인민위경제정책위원장) 이집트방문 ● 김창호 (체신부장) 가이아나 向發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순 (黨국제부장) 중국向發 ● 駐北 신임이란대사 하싼다비르 平壤도착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웅 (부총리) 몽고방문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양골라黨 및 정부대표단 (淸디빠이야마) 와 면담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경제대표단 (단장 : 대외경제위원장 김달현), 소련방문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과학기술대표단 (단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자방) 중국방문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 · 政대표단 (단장 : 경제정책위원장 윤기복), 남예멘, 이집트, 이디오피아 방문후 귀환 ● 외교부 대표단 (단장 : 외교부 부부장 김용영), 탄자

日 字	動 向
	<p>니아, 잠비아 방문후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몽고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제 2 차회의 의정서 조인 (울란바토르)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담 (黨비서) 임수경양과 면담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용순 (黨국제부 부부장), 중국방문후 귀환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군사대표단 (단장 : 국방성副相겸 반항공총사령관 대장 트레차크) 訪北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수경 양과 문규현신부, 판문점 통해 귀환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까틀로 엘리아발로리 訪北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 소련군사대표단 (단장 : 국방성副相겸 반항공사령관 트레차크) 면담 ●외교부대표단 (단장 : 副부장 전인철), 스리랑카 및 태국방문차 向發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개발기구 (UNDP) 총국장 도밍고 시야드 訪北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체육인 열성자대회 개최 (8.18-8.19, 인민문화궁전)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 유엔개발계획 총국장 도밍고 시야드와 면담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한국정부와 유엔단독가입계획을 비난하는 내용 ●정부대표단 (단장 :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 이디오피아·앙골라向發 ●국가과학기술대표단 (단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자방) 소련向發 ●김유순 (북한체육위원회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

日 字	動 向
	제 95 차 총회 참석차 푸에르토리코向發
8. 22	●金永南(외교부장), 방글라데시 외교부장 아니슬 이슬람 마흐무드와 면담
8. 23	●女盟제 5기 11차 전원회의 개최(平壤)
8. 24	●중국적십자대표단(단장:전신청), 平壤着 ●무역대표단(단장:무역부부장 구본태), 시리아向發
8. 25	●군사대표단(단장:軍총참모장:崔光), 中國向發 ●이란외무부 제 1 차관 알리모하마드 데쇼라치 일행 平壤着
8. 26	●손성필(北赤위원장)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9.6 판문점)
8. 27	●崔光(軍총참모장), 중국북경軍區 기갑사단 시찰 ●金日成, 이란외무부 제 1 차관 일행 면담
8. 28	●전국모범소년단 열성자대회 개최(혜산)
8. 28	●정부대표단(단장:부주석 李鍾玉), 리비아 9월 9일 혁명절 20주년행사 참가차 離平 ●北韓-폴란드간 과학기술분야 협조 협정조인(平壤)
8. 29	●金日成 함경남도지역 산업시찰
8. 30	●北韓-소련과학기술위원회 1989-1991년도 과학기술협조 계획서 조인(모스크바)
8. 31	●정부대표단(단장:총리 延亨默), 유고에서 개최되는 제 9 차비동맹정상회의 참가차 向發
9. 4	●영화대표단(단장:문화예술부 副부장 권혁봉), 소

日 字	動 向
	<p>련向發</p>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담 (黨비서), 중국黨중앙고문위원 양리진 일행과 회동 ●北韓一東獨간 과학기술보급분야 협조 협정조인 (平壤) ●北韓, 소련평화단체사회학자 토론회 개최 (平壤)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 : 同부의장 손성필), 중국向發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 이탈리아 R.TV 지국장 일리리오 피오레와 면담 ●화학공업부 대표단 (단장 : 김환), 소련向發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韓 정권수립 4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평양) 一吳振宇, 李鍾玉, 延亨默 등 참석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一중국 수력발전회사이사회 제 42 차회의 결정서 조인 (9.11, 북경)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용항공국대표단 (국장 : 김원웅), 국제민용항공기구 제 27 차총회 참석차 캐나다向發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표단 (단장 : 외교부제 1 부부장 강석주), 제 44 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向發 ●정부대표단 (단장 : 합영사업부장 채의정), 말타독립절 행사 참가차 向發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亞·阿보힘 및 재보힘연맹 제 11 차 총회개막 (平壤 인민문화궁전)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코군사대표단 (단장 : 민족보위상 밀란와슬라비브)

日 字	動 向
	<p>訪北—북한, 체코 군사대표단간 회담 (북측대표 : 인민 무력부장 오진우)</p>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3 차 사회주의국가 측지기관회의 개막 (平壤) ● 黨대표단 (단장 : 당비서 최태복), 東獨向發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문화대표단 (단장 : 문화예술부장 장철), 체코向發 ● 조총련 제 15 차 전원회의 개최 (東京)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代表團 (단장 : 허담), 사회주의국가黨국제비서회의 참가차 불가리아向發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대표단 (단장 : 인민군총참모장 최광), 루마니아, 불가리아 向發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대표단 (단장 : 부부장 이진부), 소련, 몽고向發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폴란드간 경제 및 과학기술분과위 제 13 차 회의 의정서 조인 (平壤)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소련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약 조인 과학기술협조 시설분과위원회 제 22 차 회의 議政書조인 (平壤)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유고간 89-90 년도 문화협조계획서 승인 (베오그라드)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몽고간 건축가동맹간 89-91 년도 협조계획서 조인 (平壤)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쿠바간 90 년도 상품교류협정 및 경제과학기술협 의정서 제 13 차 회의 議定書조인 (平壤)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표단 (단장 : 군참모장 崔光), 루마니아 이어 불가리아 방문 ● 북한—몽고간 90 년도 무역협정 조인 (울란바트로)

共産圏 및 周邊動向

- 제 9 차 비동맹 정상회의 결과분석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7.7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中, 蘇의 반응

제 9 차 비동맹 정상회의 결과분석

1. 會議概要 및 主要決定事項

◀會議概要▶

- 日時・場所：1989. 9. 4 - 9. 8, 유고 베오그라드
 - * 8.31 高位實務會議, 9.1 - 9.2 外相會議
- 參加國數：170 여 國家 및 國際機構
 - 議長團：유고
 - 非同盟會員國：102 個國
 - 國家首相參加國：53 個國
 - * 北韓은 延亨默 정무원總理 참석
 - * 유엔사무총장은 읍서버 자격으로 참석

◀主要決定事項▶

- 종래의 非同盟會議時보다 穩健한 내용의 「最終文書」 채택

~ . ~ . ~ . ~ . ~ . ~ . ◀最終文書 主要內容▶ ~ . ~ . ~ . ~ . ~ . ~ .

{
 { . 국제긴장완화 추세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강경회원 {
 { . 국들과의 타협결과) {
 { . 제 3 세계의 외채, 선·후진국간의 빈부차 등 국제경제의 구조 {
 { 적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노력 촉구 {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경각심 제고 및 공동노력 촉구
· 인권·마약·국제테러 등 현안문제에 유의

- 1991년 전체외상회의 개최국으로 「가나」 결정
-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은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北韓이 적극 誘致活動을 벌였으나 追後 「가나」외상회담에서 최종결정으로 합의
- 南南協力 강화를 위한 13개국 「頂上協力그룹」 구성
- 西方先進國 정상회의 (G-7)에 대항하여 開途國의 交渉立地 강화 목적
- 베네즈엘라를 102번째 회원국으로 결정
- PLO를 아시아지역 副議長國 (8개국)으로 선출함으로써 정식국가로 인정

2. 韓半島問題

가. 韓半島條項 採擇

- 8.27 유고가 작성한 草案內容 채택
('86. 9, 제 8차 정상회의와 동일한 내용)
- 北韓은 유고側 草案에 修正案 不提出

◀ 第 8 次 頂上會談의 韓半島條項 ▶

- 한반도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상존한 데 우려

-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국인의 평화통일 노력 환영
- 한국인의 평화통일 염원이 同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통해 재고되기를 희망

나. 各國代表의 首腦演說에서 北韓立場을 支持

－ PLO,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말리, 앙골라, 쿠바

3. 北韓動向

가. 北韓代表 演說

● 9.5 (水) 북한대표 延亨默總理 연설

◀ 主要演說內容 ▶

- 비동맹운동의 근본이념과 원칙을 고수하여야 함
 - － 비동맹의 현대화는 지지하나 이로 인한 비동맹의 경제실무화 및 약화시도는 반대함.
- 남남협조 발전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함.
 - －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南南협조를 해야 함.
 - － 무역과 금융통화분야에서 南南협조를 해야 함.
 - － 과학기술 및 경제적 남북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함.
- 비동맹은 한반도 긴장완화 해소를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을 촉진시켜야 함.
 - － 3자회담 및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져야 함.
 - － 한국은 문익환, 임수경 구속으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반대하고 있음.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은 두개 조선 책동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연방제 단일국호하에 가입하여야 함.

나. 北韓代表團 活動

- 금번 회의기간중 延亨默은 유고대통령, 유엔사무총장 등 21개국 首腦 代表와 접촉하였으며, 외교부장 金永南은 13개국 外相과 회담(북한방송보도)

4. 綜合評價

가. 非同盟路線 修正摸索

- 금번회의 「最終文書」는 西方 비난을 自制하고 대결보다는 협조, 理念보다는 實利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反植民, 反霸權 등으로 일관되는 1986年 第8차회의 최종선언문과는 큰 차이를 보임.
- 금번회의는 북한, 쿠바, 리비아 등 강경파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고 등 온건파 국가들이 주도하는 非同盟 현대화 주장이 대다수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향후 非同盟運動이 '60年代 출발당시와는 달리 理念과 原則爲主에서 탈피 현실적인 실용주의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음.
- 금번회의에서는 非同盟路線 문제를 둘러싼 強·穩派 국가들간의 의견대립외에도 이란-이라크戰, 아프카니스탄 문제등 지역문제에 있어 각 이해당사국들간의 대립관계가 재삼 부각됨으로써 非同盟의 분열현상이 露呈되었음.
- 한편 금번회의에서는 지역문제외에 제3세계 外債 및 환경문

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 3 세계 국가들의 구체적 협조계획과 관련 南北會議를 모색하고 있음.

나. 韓半島問題 및 北韓態度

- 금번회의에서 증진과 類似하게 온건한 내용의 한반도 조항이 별다른 論難없이 채택된 것은 한반도문제가 非同盟國들의 주요관심사가 아닐 뿐 아니라, 韓國이 불참하는 非同盟 舞臺에서의 한반도 문제토의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北韓이 한반도조항과 관련, 수정안을 제출치 않은 것은 非同盟의 「협력·조화·개방」추세에 맞서 그들의 과격한 이념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한 결과임.
- 특히 금번회의에서 北韓이 한반도문제와 관련, 그들의 상투적 宣傳 素材인 「두개조선」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에다 임수경문제 등을 집중거론, 韓國이 「反統一」「反對話」적인 것으로 부각코자 기도하였으나 이는 非同盟環境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北韓은 延亨默의 연설내용으로 보아 여타 강경파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非同盟의 非政治化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非同盟 理念, 原則을 고수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7.7선언·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중·소반응

구 분	소 련	중 국
<p>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82.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주재 북한대사 권희경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측 김일의 거부 담화내용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보도 (모스크바방송, 1.28) ● 김일 거부담화 인용 보도 (타스, 2. 1 및 프라우다,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 담화는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결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며 이를 견결히 지지함. ● 전○○은 통일방안이란 것을 들고 나옴으로써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책임에서 발뺌하려고 피하고 있음. (인민일보, 1.30) ● 조선의 분열이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저들의 군대를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전○○도당이 두개

구 분	소 련	중 국
<p>7.7 대통령 특별선언 ('88. 7. 7)</p>	<p>● 금번 제의는 지금까지 한국의 대응으로 볼때 일보 전진임. (소련공산당 중앙위 국제 부 부부장 『이반 코와 렌코』 방일중 평가, 7.</p>	<p>조선정책을 집요하게 밀 고나가게 하고 있기 때 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〇 〇의 통일방안은 현 실을 회피하고 조선을 영구히 분열시키려는 흉 악한 정체를 또 다시 드 러내 놓는 것임. ●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 은 조성된 현 정세를 똑 바로 보고 두개 조선정 책을 버려야 하며 통일 에 장애되는 모든 현상 을 없애고 조선의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함. (인민일보 및 북경방송, 2. 2) ●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 7.7 선언을 조작하려 는 분열주의적 음모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서 통일적인 방안이나 평화적인 제안이 될 수

구 분	소 련	중 국
<p>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89. 9. 11)</p>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의 제안은 가잖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음. 주 요야당인 평민당은 대통령 의 계획을 배격했음. 평민당 대변인은 노○○가 말로만 통일을 주장 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모스크바방송, 9.12) ● 서울이 내놓은 조선협동 체 라는 구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완전 이해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합리적인 알맹이를 내포 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p>없다”고 지적했음. (북경방송, 7.14)</p> <p>※ 중국방문후 한국에 들른 (7.16-18) 술 츠 미 국무장관은 7. 7선언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태우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조선측이 발 기한 고려민주연방공화 국의 통일실현방안과 대 립되는 것임. ● 읍서버들은 노대통령의 제의를 남조선의 현행 제도를 전반적인 조선 반도에 강요하려는데 목 적 이 있다고 하면서 이 는 북조선측이 견지하고

구 분	소 련	중 국
	<p>노대통령이 고위급 쌍방 상봉에 동의한 것이 그런 합리적인 알맹이가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마지막 제안들은 일정한 정도로 평양의 발기와 유사한 점이 있음. 평양은 조선측간 대화와 상호이해를 적용하며 반도에서의 긴장성을 완화하려는 노선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의 제안은 주목을 받아야 하며, 조선통일의 길은 남과 북이 상호탐구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리라 기대함. <p>(모스크바방송, 『이고리 레베제브』논평, 9.13)</p>	<p>있는 남북쌍방이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을 데 대한 통일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음.</p> <p>(북경방송, 9.12 및 9.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 인용보도 <p>(북경방송, 9.15)</p>

資 料

- 「이스베스차」誌의 「남북한 교차승인」 기사분석
- 「남북한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관련내용
 - 延邊지역 방문기
 - 북한전문가 : 玉城素
- 北韓學生들의 방학생활과 과외활동실태
 - 北韓의 「劇映畫」 제작실태
 - 최근 北韓의 무역 및 外債실태
- 南北韓 군사문제관련 자료목록

「이스베스차」誌의 「남북한 교차승인」 기사분석

1. 概 要

- 蘇聯 정부기관지 「이스베스차」誌(9.1일자)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샤프시나女史(東洋學研究所)의 寄稿論文을 掲載, 한국 정부의 「自主性」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이에 따른 蘇聯의 韓國政府 承認(交叉承認), 궁극적으로 「聯邦制」 실현을 주장하였음.
- 지난 7월 「노보이 미르」(New Times : 蘇聯共產黨 中央委 對外弘報機關誌)의 「韓半島 情勢」기사가 주로 「남북한관계 정상화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相互軍縮」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금번 논문은 「연방제 실현을 돕기위한 交叉承認」의 當爲性을 美國의 對韓 영향력 감퇴와 한국의 자주성 回復趨勢에서 찾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최근 蘇聯이 이처럼 공식·비공식의 통로를 통해 한반도문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軍縮 및 交叉承認 등에 대한 先制的 적극성을 거듭 示唆하고 있는 것은, 韓·蘇 修交問題에 대한 蘇聯外務部 대변인(바담·페르필리에프)의 공식부인(9.4)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새로운 한반도문제 접근방안의 본격 시행을 앞둔 「序曲」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 記事內容의 主要 要旨

◀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聯邦制案 ▶

- 1948년의 대한민국 건설은 소련 점령지역에 위성국을 갖겠다는 미국의 장기 전략적 고려와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탄생된』 제국주의적인 보호막속의 국가였다.
- 그러나 이제 한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정부가 이미 40여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도 인정해 왔다.
그래서 북한은 양국이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연방을 형성하자고 제안해 온 것이다.
- 북한의 聯邦制案은 일리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안을 실현시킬수 있는 모종의 보조적인 지렛대가 필요하다.

◀ 聯邦提案의 實現을 위한 交叉承認 ▶

- 오늘날 한국의 형성은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4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풍부하며 공통의 전통·관습과 생활제도를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국가의 분단이 깊어지는 것을 남한의 사회여론이 외면할 수 있겠는가.
미군의 한국주둔은 이 지역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모든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아프게 건드리고 있다.
- 아직도 정신적·심리적 영역에서 미국의 일부 세력은 비즈네스·

소비·물질적 혜택이라는 이상을 끈질기게 심고 있지만, 현재 남한의 內政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아울러 남한은 이념면에서 점차 민주주의와 민족적 통일에의 열망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 이러한 여건에서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大韓民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적 운동에 객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한국승인은 蘇·中·美·日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한반도상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교차승인은 연방제안의 점진적 실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남북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간의 상호이해와 합리적 화해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 蘇聯의 國益外交로서의 韓國承認 ▶

- 오랫동안 소련의 국가이익은 대한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동맹국 北韓을 지지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련에 유리한 한·소 경제접촉마저 완강히 거절해 왔다.
-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시작한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웬일인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經協을 공고화하고 우리의 극동경제선의 긴장을 완화해 줄 『한·소 관계개선』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 『한국승인』은 우리의 국제적 권위를 높여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新思考』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소련에 의한 대한민국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分析 및 評價

가. 本 論文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요지를 정리해 보면,

- 南韓은 원래 美帝國主義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불법적으로 탄생하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국가로서 자주성을 현저하게 回復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민족적 통일에의 열망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여건에서 交叉承認은 聯邦制案의 점진적 실현, 한반도 非核地帶化, 남북대화에 기여할 것이고 南北間의 상호이해와 합리적 화해의 길을 열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를 위한 아시아 국제회의 개최도 가치있는 일이 될 것임.
- 이제 蘇聯은 從來의 一邊倒的 北韓支持 태도를 버리고, 「新思考」의 연장선상에서, 극동지역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蘇聯의 국가 이익을 고려, 「大韓民國의 承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나. 결국, 금번 論文의 主題는 「韓·蘇修交」를 포함한 「交叉承認」에 두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러한 인식의 배경에서 최근 「美國의 對韓 影響力 減退」에 따른 공백이 蘇聯의 浸濕許容空間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實際로 蘇聯은 6공화국 출범과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

主義(反美)와 自主性, 민족통일 열망등에 대해 전례없던 새로운 관심과 肯定的 평가를 해오던 터임.

다. 일부 전문가들은, 蘇聯이 최근 한반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따라 새 접근방안의 골격을 이미 마련해 놓고, 검토와 보완을 거듭하면서 적극적 개입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6共」출범 이후 蘇聯이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새 方案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交叉承認 및 南北韓 유엔加入問題 ▶

- 한반도에는 두개의 독립된 주권국가가 있고, 한·소관계 개선은 당연한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교차승인은 불가피하며, 교차승인후의 남북한은 모두 유엔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보빈 『이스베스차』 政治評論家, 訪日記者會見,

'88.10.12)

- 미·소간에 정상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교차승인」문제에 대한 특별성명을 채택한다.

(『노보이·미르』, '89. 7.12)

◀ 聯邦制 實現問題 ▶

- 연방제도는 서로를 서로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보론초프 蘇聯東洋學研究所研究員, 日本 심포지움發表, '89.7.29)

◀ 南北韓 軍縮問題 ▶

- 남·북한 및 미·소의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구성
 - 소련의 對北韓 무기공급 축소,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의 동시시행
 - 『한반도 비핵지대화』논의
-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구성
 - 미·중·소 등 몇개 국가들이 유엔후원하에 남북한 무력 불사용 조약을 보증
 - 남·북한에 대한 군사원조의 제한 및 중지문제 논의, 기습 공격 방지와 신뢰구축제도 마련
 - 비무장지대 양측에 완충지대 설치, 공격용 무기 및 핵무기의 철거, 군사훈련 금지
 - 남북한 군사력 균형논의, 미군의 단계적 철수

(『노보이·미르』, '89.7.12)

◀ 韓半島問題의 國際的 論議 ▶

-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중립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지난 1945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極東平和會議』방식이 요즘과 같은 동·서 데탕트의 분위기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북한 당사자와 미·일·중·소 등 주변 4국 및 인도·스위스 등 중립국이 참가하는 『韓半島問題 國際圓卓會議』를 열어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기지 철수문제를 논의하자.

(티호미로프 東洋學研究所 國際部長, 訪日 記者會見, '88.7.21)

- 소련은 소·중·일·북한·남한의 해안선이 집중되는 이 지역의

군사적 대치상태 완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간 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고르바초프,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 '88. 9. 16)

라. 최근 蘇聯이 종전의 「韓半島 統一問題의 당사자 해결논리」를 탈피하여 「交叉承認」, 「南北韓 軍縮 및 긴장완화를 위한 國際會議」와 「유엔의 參與」등을 주장하고 있고, 한편 서독정부는 「新데탕트」무드와 독일문제에 대한 美·蘇의 肯定的 태도변화를 틈타 「統獨問題의 國際的 論議」를 추진하고 있는등 작금의 사태변화는 장차 「韓半島問題의 國際化」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음.

『남북한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관련내용

다음은 當院이 開催하였던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1989.8.28-29)에 참가하였던 소련아
카데미, 世界社會主義 經濟體制研究所
연구원 GEORGE D.TOLORAYA 博士 와의
接觸內容임.

1. 北韓 經濟實態 및 北·蘇 經濟協力

가. 北韓經濟 評價問題

- 北韓經濟體制은 본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기 보다는 스탈린 경제체제라고 표현하였음.
- 北韓은 가격체제 자체가 非合理的이므로 北韓이 발표한 국민소득을 통해 경제실태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蘇聯에서도 北韓이 발표하는 통계와 관계없이 별도로 북한경제력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
- 韓國의 北韓경제 연구결과를 검토한 소감은 대체로 蘇聯이 평가하고 있는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음.

※ 同人은 귀국후 1987 年度에 蘇聯에서 평가한 북한경제 관계 자료를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음.

나. 北韓의 재정·물가·환율 問題

- 北韓의 豫算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만 北韓이 발표하는 국가예산은 중앙예산에다 지방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예산의 비중이나 내용은 발표하지 않음.

- 최근 北韓은 공장·기업소에 공급하는 전기사용료를 2배로 인상하였음.
- 사회주의 국가화폐의 對美弗 換率은 평가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된다고 하였음.

일례로 과거 蘇聯의 경우 단순하게 양복 한벌 값을 미국과 비교하여 환율을 결정한 바 있었는데 이때 양복의 質的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더우기 정책결정자의 말 한마디로 환율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음.

다. 北韓의 電力問題

- 北韓은 전력이 부족한 상태로 그 원인은 첫째 수력발전 비중이 높고, 둘째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셋째 저열탄 등 사용연료가 불량하여 부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3次 7個年計劃 기간중 蘇聯은 東淸양화력발전소 건설과 북창 화력발전소의 확장공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음.
- 蘇聯이 지원, 건설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건설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蘇聯 자체가 자본이 부족하여 약속된 借款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원자력 발전설비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음.

라. 北韓의 핵무기개발 문제

- 최근 北韓이 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변의 연구용 原子 爐는 中國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再處理工場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귀국후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음.

다. 시베리아 伐木 問題

- 시베리아 伐木事業協力에 있어서는 현재 北韓이 4個의 伐木事業所를 시베리아에 진출시키고 있다고 하였음.
- 생산된 林產物은 별도의 蘇聯 輸出商社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를 통해 日本 등 第3國으로 수출하며 北韓은 수출상사로부터 약 정된 분배몹을 받는다고 하였음.
- 따라서 시베리아의 벌목사업으로 北韓이 수출한 林產物은 北韓의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바. 蘇聯의 對北 경제지원과 수출입 문제

- 蘇聯의 對北 설비·기술지원은 借款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貿易計定上으로는 제공된 설비가 蘇聯의 수출로 기록된다고 하였음.
- 借款의 償還은 공장가동후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蘇聯에 납입하도록 협정이 체결되며, 이때 상환된 물자는 北韓의 수출로 집계된다고 하였음.
- 70年代中 蘇聯은 김책製鐵聯合企業所의 냉간압연공장, 平壤小型電動機工場, 平壤에나멜線工場 등 건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생산물의 80%를 蘇聯에 납입토록 하였으나, 제품의 質(강판, 소형전동기), 규격(에나멜선) 등이 맞지 않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함.
- 따라서 北韓의 對蘇 債務만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음.

사. 北韓의 서해안 유전개발문제

- 西海岸 石油開發은 당초 유고와 협력하여 探查를 진행하다가 다

시 노르웨이가 탐사에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 그러나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北韓이 유전개발에 성공했다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 틀림없으나 아직 이러한 반응이 없는 것은 유전개발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였음.

아. 蘇聯의 平壤祝典 지원문제

- 蘇聯의 지식계층이나 젊은 학자들은 北韓이 평양축전을 개최하는데 반대하였으나 北韓이 이를 고집하고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음.
- 蘇聯은 北韓의 平壤祝典 개최에 2千萬루블을 지원하였다고 하였음.

자. 北韓의 經濟特區 설치문제

- 北韓은 合營法 발표이후 經濟特區 設置를 검토해 왔으며, 南浦를 經濟特區 設置 대상지역으로 준비해 왔다고 하였음.
- 최근 서방언론에 의해 보도된 豆滿江 하구 하산지역은 河上地帶이기 때문에 여건이 나빠 經濟特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임도 4배정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北韓은 지도층이 결정만 하면 여건에 관계없이 이 지역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음.

차. 기타 서방기업의 對北 進出

- 平壤에 건설중인 류경호텔은 프랑스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0층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대금이 지불되고 있다고 함.

- 상원시멘트공장 건설에는 西獨의 KICT社가 프랜트와 기술을 제공하여 건설하였다고 함.
- 최근 홍콩은 北韓에 TV생산공장에 합작하였으며, 日本 朝總聯과 합작한 모란봉피복공장은 日本에서 제단된 원단을 공급받아 봉제만 北韓이 하는 가공생산 형태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2. 蘇聯 經濟實態와 韓·蘇 經濟協力

가. 蘇聯 經濟實態

- 蘇聯은 1987年경부터 식량, 의복을 비롯한 모든 소비품이 부족한 실정이며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함.
- 그 원인은 1987年부터 외화부족으로 인해 소비품의 수입이 거의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 외화부족의 요인은 우랄산맥 以西 및 중앙아시아 以南地域의 자원은 이미 枯渴狀態에 도달했으며,
- 나머지 자원매장지역은 대부분 기후조건이 나쁘고 노동력이 부족한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데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자본부족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특히 80年代初 오일쇼크이후 국제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外換事情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함.
- 따라서 현재 蘇聯의 경제침체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것은 아니며 고르바초프 집권이전에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함.

나. 고르바초프의 開放政策의 問題點

- 고르바초프를 支持하는 지식계층은 침체된 蘇聯經濟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초조해 하고 있는 바, 향후 1 ~ 2년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고르바초프體制가 붕괴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蘇聯 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빵과 보다 많은 생필품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얼마간 炭鑛勞動者들의 罷業은 공급증대와 일정량의 國家收買以外 생산물은 노동자들이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되었으나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함.
- 그 결과 다른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도 탄광노동자들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임으로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 생필품 부족의 加速化, 인플레이션의 誘發 등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함.
- 만약 고르바초프체제가 붕괴될 경우 蘇聯 정치체제는 天安門 사건이후 中國과 같은 과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방 국가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음.

다. 韓·蘇 經濟協力 問題

- 韓·蘇 經濟協力에 관해 소련지도층은 다음과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첫째, 蘇聯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였음은 물론 서울과 모스크바에 무역사무소 개설도 실현시켰으나 韓·蘇 經濟協力 성과는 아무것도 없음.
 - 둘째, 韓國은 양국간 외교관계를 먼저 수립함으로써 對蘇投資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北韓에 대한 蘇聯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구임.

- 韓國은 먼저 蘇聯과의 경제협력을 실현하여 성과를 보임으로써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함.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르바초프의 開放·改革이 성공을 거둘수 있도록 韓國이 협력하는 것이며, 현재 美國이나 日本등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나 西獨만이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함.
- 韓·蘇 經濟協力の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韓·蘇 외교관계 수립은 조금도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현재 蘇聯은 韓國의 경제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織物과 被服, 신발, 電子工業등 소비재 생산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
-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 지역은 투자여건으로 볼 때, 纖維産業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은 부지런한 한국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綿花가 생산됨으로 원료공급이 용이하고 전기, 用水,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함.
 -여기서 紡絲, 綿紡, 編織 등 一貫工程施設을 갖춘 합작기업이 설립되면 中間材 공급상의 애로도 없을 것이며, 韓國과의 수송문제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 한마디로 韓·蘇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으로 보이며 만약 앞으로 1~2년을 넘기게 되면 好期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表明하였음.

3. 綜合判斷

- 同人은 체류기간중 언동내용으로 보아 蘇聯의 엘리트 공산당원으로 訪韓 당시 韓國 行政府 人士와는 개별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고 함(개별 접촉 사실은 비공개를 요구하였음).
- 同人의 思想은 고르바초프의 改革을 적극적으로 支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매우 부러워 하였음.
- 따라서 同人이 밝힌 北韓 經濟實態, 北·蘇 經濟協力 關係 등은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韓·蘇 경제협력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하게 蘇聯 지도층의 생각을 전하여 주었으며 그대로 보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
- 특히 韓國의 對蘇 경제협력문제와 관련 고르바초프가 北韓을 방문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金日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상당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延邊지역 방문기

다음은 中國延邊 韓人 自治州를 방문('89. 8.2~8.11) 하고 돌아온 日本의 북한문제 전문가 다마끼 모토이(玉城素)氏와의 面談內容임.

1. 延邊市場의 北韓商品 陳列

- 延邊自治州 東北亞 研究센터를 방문하던 중, 延吉市內 외곽의 露天市場內 브릭 벽돌로 지어진 2층의 허술한 건물을 찾아갔는데, 그 건물의 제일 구석진 곳에 북한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음.
- 이곳에서 파는 물건은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이 가게에 되 판 물건들이며(반드시 팔아야 한다고 함), 80%가 乾魚物인데 먼지가 묻어 더럽기 짝이 없었고 쓰레기통에서 건져내온 물건 같았음.
- 2층에는 중국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도 비교적 붐비는데 비해, 북한상품 구경자들은 평균 5~6명 정도밖에 없어 북한상품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中國側 圖們에서 北韓으로 가는 큰 다리에는 북한에서 건너 오

는 차량은 거의 없고, 강냉이를 가득 실은 중국측 트럭만 북한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中國의 옥수수가 北韓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北韓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그간의 보도·증언을 실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2. 圖們地域의 港口建設 計劃

- 中國은 中·蘇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점을 이용, 圖們, 琿春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지역을 東北亞 據點都市로 육성하기 위해 圖們, 琿春을 연결하는 鐵道 敷設工事を 진행하고 있음.
- 圖們에는 北韓·中共間的 우의를 상징하는 友誼公園이 있으며 사실상 圖們이 中國의 東北亞地域 關門役割을 하고 있음.
- 延邊自治州 政府의 副州長을 만난 니가다에 있는 『日本海研究所』 사무국장 도마 다케오(藤間丈夫)씨는 延邊自治州 政府에서 圖們開發에 관한 구체적 方案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였음.
※ 구체적 내용은 내부자료라하여 보여주지 않음.
- 同 계획에 따르면 두만강 下流에 防潮堤를 쌓아 관문시설을 이용, 하류에서 15 Km 떨어진 圖們을 接岸施設을 갖춘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는 한편, 經濟特區化 한다는 것이며, 이미 上部의 內諾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하였음.
- 두만강이 일종의 國際河川이라는 점에서 中國側은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89.6) 때 이미 소련측의 양해를 받았고 북한의 동의도 얻었다고 함.
- 8.15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중앙정부의 조사단이 방문하는 계

기를 이용, 延邊自治制에서는 圖們의 무역항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現地人과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단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華中, 華南 地方과의 개발 우선순위를 따져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南·北韓 및 日·캐나다와의 합작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中國側은 北韓을 不信하여 (콘테이너나 貨車등을 돌려주지 않는 등 약속위반 사례 빈번) 北韓 內部를 통과하는 방안은 배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側의 東海와 北韓의 淸津, 蘇聯의 포에트(港口建設構想中), 延邊自治州를 연결한다면 새로운 東北亞 交易圈 誕生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의견 제시

- 특히 同 自治州 副州長은 韓國을 世界 14位의 선진국으로 인정, 韓國과의 관계증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현재 自治州의 對外合作 6건이 모두 韓國과 이루어진 것이며 藥品工場, 다이아몬드 가공등 2건은 이미 韓國 기술자가 파견되어 가동상태에 있다고 함.

—中國과 北韓과의 합작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中食과 韓食을 專門으로 하는 요식업 투자가 1건 있으며, 北韓 맥주를 주로 쓴다고 하나 平壤祝典時에는 오히려 北韓에서 延邊地域 酒類를 輸入해 갔다고 함.

3. 延邊地域의 韓國問題 研究

- 延邊大學의 圖書館(5층)을 방문했는데, 韓國의 최근 자료가 진열되어 있는 등 南韓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그러나 北韓 研究는 北韓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중앙정부의 발표 금지 방침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親北韓派 학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단지 최근에 『중국문헌에 나타난 金日成』을 발표 한 金某라는 學者가 있는데 그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별로 없으며, 金日成이 만주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 청년조직에 入黨신청을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金日成의 年代記上 믿을 수 없으며 그 당시 金日成 이름으로 중국문헌에 나타난 者들이 모두 同一人인가를 問議한데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하면서 문헌상 연구라고만 강조하였음.
- 추측컨대 중국 공산당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에서 現 北韓의 金日成이 아닌 다른 金日成의 行跡을 이용, 金日成이 중국 공산당의 亞流라고 주장한 것 같음.

4. 北韓 實態

- 北韓에서도 맥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北韓 當局은 個人專用의 터밭에도 호프 보리를 심도록 하고 있는데, 北韓 주민들이 밭가에만 호프를 심고 가운데에는 종전대로 야채를 심었으나 야채가 햇볕을 못 받아 채소도 못 먹고 호프도 안되는 상황에 놓

여있음.

- 고마끼 테루오(小牧輝夫)나 시즈 가토미 등 일부 日本경제학자들이 北韓을 사회주의 중진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장생산설비나 GNP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음.
- 北韓은 70年代 중반이후 전력·原料·部品不足 등으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공장만 지어놓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이런 현상은 申相玉 監督의 책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北韓의 순천비날론공장, 청진화학공장 등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석유를 수입하여 原資材로 써야 하는데도 石灰石을 원료로 씬으로써 제품의 質도 문제려니와 정상가동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임.

—공장생산설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동율까지 고려해야만 北韓經濟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北韓의 GNP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軍事費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平壤祝典 費用으로 40억달러 이상을 충당한 것은 국민들의 衣·食·住를 搾取하여 그 財源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 그러나 더큰 문제는 金日成이 80세가 되는 1992년에 第3次 7個年 경제계획이 완수되고 주한미군 철수와 南北間의 平和交渉이 실현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임.

—金日成은 기본적으로 韓國이 식민지 소비국가 인데다 비록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곤궁하더라도 北韓에는 重工業·軍需工業이 있기 때문에 1992년에 가면 北韓이 韓國보다 優位에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부하들의 왜곡된 정보전달에 의해 오랫동안 길들여진 金

日成과 金正日이 韓國에 대해 너무 모르며 偏見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金正日이 申相玉에게 北韓을 알기 위해서는 『가난한 동구권』에 가보라고 지시한 데서도 알 수 있음.

※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알곡 1,000 만톤』은 실제 『600 만톤』밖에 안돼 金日成이 憤怒했다는 사실도 있으며, 金日成이 지시한 「東西大運河 建設」계획을 姜成山 前總理가 무모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까닭에 해임되었다고 함.

- 절대 충성파인 延亨默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3次 7個年計劃이 달성될리는 만무하며, 延亨默도 1991年에 가면 해임될 것임. (北韓 총리는 경제계획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개 경제계획 완료 1年前에 해임돼 왔음)

5. 東北亞 研究中心

- 中國 政府는 최근 長春地域의 사범대학, 여자대학 등과 長春社會科學院內的 일본연구소, 소련연구소, 조선연구소 등을 統合, 『東北亞센터』를 발족시켰으며 연구와 병행하여 경제협력에 관한 실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吉林省의 考古學者로서 광개토태왕碑의 연구에 밝은 王建群에게 한국경제를 연구하도록 시킬 정도로 연구센터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문화혁명때 지식인 추방등의 영향)
- 또한 이러한 연구센터는 上海와 延吉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산하에 무역회사도 같이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東北亞 경제 실무전

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함.

—이는 연구센터의 운영방향이 아직까지 제대로 定立되지 못한 데 기인하며, 同 센터의 연구비중 北韓 延亨默 總理의 延邊農林學校의 후배이며 吳克列 前 參謀總長의 동기동창인 李某라는 學者가 있는데, 그는 日本에 가서 북한현실에 대해 말하길 원한다고 함.

北韓학생들의 방학생활과 과외활동실태

北韓학생들의 방학기간은 여름방학의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말일까지 보름간이고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한달간이다.

여름, 겨울방학기간이 45일간으로 우리의 중고등학교 평균 80일에 비하면 훨씬 짧고, 우리의 경우 봄, 가을 학기말에 갖는 1주일간의 방학기간을 합치면 북한의 학생들보다 두배이상이나 되는 긴방학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방학기간이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두배나 긴 이유는 教室用 난방연료 절약때문이라 생각된다.

북한학생들의 放學生活은 한마디로 방학기간중 定規敎課에 대한 학습만 없다뿐이지 학교에 등교하여 각종 과외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방학이 아닐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放學期間中の 주요생활은 특별히 선발된 몇몇 학생들의 혁명사적지답사, 야영생활 참여, 소조활동 참여가 가장 보람찬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선발되기란 특수계층의 자녀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최근 北韓當局은 「전국소년과학탐험대」를 결성,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이용, 과학탐험활동을 벌려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뿐 아니

라 공장·기업소와 명승고적, 문화유적들을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외에도 이들 「소년과학탐험대」는 자연관찰, 동식물 채집, 과학자·발명가들과의 상봉, 탐험발표회 등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조직된 「소년과학탐험대」는 지난 '88년 3월 노동당 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세대들에 대한 과학기술교육방침』에 따른 세부조치로서 청소년들에게 과학탐구심을 배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과학기술분야 저변을 확대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년과학탐험대 역시 지금까지 진행했던 혁명사적지 탐사대와 같이 특별히 선발된 학생에 한해 실시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상 열거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물론 인민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활동으로서는 노력동원, 군사훈련, 학교환경정리작업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작업동원, 외화벌이사업동원, 각종 행사동원, 초대소 위문방문 등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학생개인이 자유시간을 가진다거나 친척방문, 여행 등은 할수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개인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부모가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책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북한에선 원칙적으로 放學이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휴무나 자율시간을 주지않고 무엇인가 일꺼리를 만들어서도 과외활동을 하겠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放學기간중에는 등교시간이 아침 8시 또는 9시로 평

소보다 한두시간 늦고 저녁 하교시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후 3시에서 4시사이로 되어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하여 인민학교학생이나 고등중학교 학생은 여름에 바닷가나 개천에서 수영을 하거나 겨울철에 스케이트를 즐기게 된다.

대개의 경우 수영복이 없어 펜티나 옷을 입은채 수영을 한다거나 집에서 만든 썰매나 스케이트 대용품으로 얼음을 지치는데, 참고로 전하고 싶은 것은 수영장소나 스케이트 장소에는 어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北韓의 경우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放學期間中 숙제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방학이 아닌 평소에는 그날 배운 과목중 주요학과에 대해 상당히 분량이 많은 숙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학중에는 학과에 대한 숙제는 몇개분야에 국한하여 의례적으로 부과하고 그 대신 외화벌이 목표량을 할당하거나 특별히 지시된 수집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점으로 볼때 북한당국이 방학기간중 숙제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자율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여러가지 과외활동에 학생들을 몰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放學中 學生들의 과외활동중 가장 큰 부문은 勞力動員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노력동원은 1959년 3월 「내각결정 18호」에 의거 법제화된 「학생들의 의무노동제」에 따라 실시된다.

이 결정에 의하면 각급 학생에 대한 노동량은 인민학생 연간 2~4주, 고등중학생 6~8주, 고등전문학생 및 대학생 12~14주로

되어있다.

농촌지원사업은 모심기, 제초작업, 발매기, 추수작업, 강냉이 심기 등인데 방학중에는 주로 김매기, 풀베기, 해충잡기 작업 등인데 노력동원에 나갈 때에는 당일인 경우 도시락을 지참하고 여러날이 걸릴 때에는 양권을 가지고 간다 한다.

농촌일손돕기 다음으로 학생들이 주로 하는 과업은 「외화별이사업」이다. 학생들의 외화별이 사업내용은 토끼기르기, 산열매수집하기, 폐지, 고철 등 폐품수집, 약초 및 화초재배 등이다.

학생들의 외화별이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전량 학교당국에서 차지하고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부 학생들은 외화별이사업에서 얻은 값진 물건은 학교에 제출하지 않거나 수집량을 낮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다.

이런 일들에 대비, 학교에서는 주요 외화별이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부여하고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시는 부모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외화별이사업에 대해 북한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습작업 또는 자연학습과 연관시켜,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실습과 학습이 아니라 너무나 고된 육체노동이라 가급적이면 작업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 한다.

8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농촌지원사업이나 건설지원사업을 단기적인 보조역할로부터 장기적인 전담사업으로 바꾸었고 동원도 사로청, 소년단 단위로 조직화되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과외동원사업은 나무심기, 관솔따기, 누에치기 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도 대개의 경우 학급별, 개인별 할당량

이 부여된다.

다음 학생들의 군사훈련에 대해 알아본다.

군사훈련은 만 14세이상인 고등중학교 5학년 학생부터 남녀불문, 실시되는데, 고등중학교 5~6학년의 경우 방학기간중에는 노력동원이 없을 시 제식훈련, 여학생의 구급치료법 등을 교내에서 실시하고 전문군사교육은 「붉은청년근위대」훈련소에서 통상여름방학을 이용, 연간 120시간씩 2년간 실시한다.

이때의 교육은 현직 군인에 의해 실시되는데, 통상 강의와 토론, 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과정이 끝날무렵에는 종합실습과 사격을 한다고 한다.

대학생의 경우 준군사부대로 조직된 교도대에서 연간 685시간, 4년간 총 2,740시간의 정규군사훈련을 받는데, 여름·겨울방학기간중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끝으로 방학기간중 학생들의 학교주변환경정리작업과 학교시설 증축사업 지원등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주변 환경정리작업은 일정한 것이 아니지마는 대개의 경우 운동장 정리작업, 화단가꾸기, 학교주변 나무심기, 교실청소 등이고 학교 공사 지원내역은 수영장 건설, 교실증축 및 보수작업, 기타 학교시설물 건설사업등인데 학생들은 이때 자갈, 모래운반, 기타 자재 나르기 등의 작업에 주로 동원된다.

통상 학교에서 시설 증개축공사가 벌어지면 학생들로 하여금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못, 목재 등 가정이나 학부모의 직장에서 구입가능한 자재를 일정량 가져가야 하는데, 만일 자재를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가져다 주어야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

그 외에도 겨울철에는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주위 도로 등의 제설작업에 동원되기도 하고 교실 난방용 불소시개 수집, 땀감 수집 작업 등도 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 북한의 학생들은 방학이 꿈과 낭만을 키우는 자유로운 기간이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실습하는 작업동원기간이므로 하나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외통신 655호, '89.9.1)

北韓의 「劇映畫」 제작실태

北韓에서의 「劇映畫」는 이른바 「예술영화」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 담겨진 내용은 예술·오락성보다는 당국이 정해준 주제에 얽매어 매우 단조롭고 도식적 경향이 농후한 정치선전 선동차원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北韓이 제작한 예술영화들은 모두가 金日成·金正日우상화를 위한 혁명전통물, 韓國사회상을 비방중상하거나 마치 반정부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날조선전하는 赤化統一의식고취물, 6.25南侵전쟁당시 인민군의 공훈을 날조 과장선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호전성을 고취시키고 침략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쟁물, 그리고 北韓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주민을 노력투쟁에로 선동하는 사회주의 건설물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초 「林巨正」제 3, 4부를 동시에 제작한 것을 시발로 北韓은 울들어 지금까지 모두 20편의 예술영화를 제작완료했거나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北韓선전기관들의 보도를 근거로 집계된 이들 예술영화를 살펴보면 金日成·金正日우상화선전用인 혁명전통물이 총 9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쟁물 5편, 黨정책관철 및 주민노역선동영화 2편, 인물영화 1편, 기타 林巨正시리즈물 3편(청석골편, 서

울편, 피의 교훈편) 등이 있다.

올해 제작된 혁명전통물영화로는 金日成의 항일빨치산활동 날조·미화한 「민족의 태양」 시리즈물 제 3부인 「광복의 봄」(전·후편)을 비롯해 金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거나 北韓의 발전이 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생의 흔적」·「아름다운 기습」·「우리선생님」·「편지」 등이 각각 제작됐다.

이들 영화가운데 「생의 흔적」은 『80년대 영화예술의 특출한 성과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쓴 이춘구는 문예부문에서 최초로 「2중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고 北韓방송들이 전했다.

최근들어서는 北韓당국이 그 어느때보다도 金父子우상화선전에 역점을 둔 이같은 혁명전통물 예술영화의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민족의 태양」제 4부편과 「공청원의 노래」·「유격정치지도원」·「영원한 전위」등이 각각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軍소속의 2·8영화촬영소에서 「곡절많은 운명」·「빨간 단풍잎」·「제 2 전선」·「밀림속의 메아리」등 호전성고취의 전쟁물도 다수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北韓전역에서 제작·상영되고 있는 영화로는 金日成부자의 치적선전과 체제찬양, 그리고 주민노역선동용 영화들뿐인데 이른바 9·9절(북한정권수립기념일) 41주기념의 「영화상영주간」(9.6~12)에 때맞춰 「심장에 남는 사람」시리즈물 제 1부 「언약」·「정다운 불빛」등이 있다.

「심장에 남는 사람」이란 영화는 北韓예술영화촬영소가 시리즈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주로 「당일군들과 당일들이 당결정을 어

떻게 채택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해답을 내는 내용으로 꾸며진 黨員사상계몽영화이다.

제 1부 「언약」편은 그 내용이 지방공장초급당총회의 결정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黨간부 및 일반당원들간의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테마로 주인공 金正日을 만나고나서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없애고 자신의 것으로된 黨의 결정서채택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다운 불빛」은 中·小型발전소를 건설하는 한 농촌청년의 모습을 통해 『黨정책을 관철하는 사람은 청년들 자신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北韓청년들의 건설현장에서의 선봉적 역할강화를 촉구하는 노역배가선동용 영화이다.

이밖에 제작·상영되고 있는 영화들로는 얼마전 사망한 석윤기(작가동맹위원장)의 중편소설 「전사들」(60년作)을 각색한 同名의 예술영화 「전사들」과 「백두산」이란 서사시로 유명한 시인 조기천의 일대기를 그린 「시인 조기천」이라는 영화가 각각 있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金父子우상화선전용 혁명전통물영화나 호전성고취의 전쟁물영화제작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지난 7월초 열린 「平祝」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外部思潮의 유입경고나 黨에 대한 절대적 충성유도의 논조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 제작영화를 주민들의 이완된 사상성이나 동요를 불식시키고 긴장된 노력동원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선전 선동도구로 적극 활용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北韓은 영화예술부문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련과의 영화예술단교류와 합작영화제작등 다방면에 걸쳐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초 北韓영화예술副부장 권혁봉이 인솔하는 영화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영화관계자들과 이 부분의 관계발전문제를 협의하는 등 올해들어 영화창작·보급·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발전을 위해 모두 7건의 관계자교류를 비롯해 현재 세번째 합작영화인 「붉은 파도」가 시나리오작업이 완료돼 곧 크랭크인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영화는 北韓 2·8 영화촬영소와 소련의 고리끼영화촬영소가 공동으로 제작, 내년 5월경에 상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주제는 1950년 露日전쟁을 배경으로 『쓰시마 해협에서 격침된 러시아함대의 해병 5명이 조선해안에 상륙, 조선사람과 사귀면서 조선의 왕릉을 도굴하려는 일본강도단을 맞아 조선인과 함께 싸운다』는 北韓·소련간의 전투적 친선관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北韓과 소련은 지난 86년 첫 합작영화인 46년 3월 1일 平壤驛前 광장에서 개최된 3·1절 27돌 기념행사때 金日成에 대한 폭탄투척을 저지한 소련병사 노비첸코를 형상화한 「영원한 전우」를 선보였으며 지난해는 2차대전시 北韓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장교와 간호원의 활약상을 그린 「봄부터 가을까지」란 두번째 합작영화를 제작·상영한 바 있다.

北韓과 소련간의 영화부문에서의 협력관계는 지난 56년 10월조인된 문화협력협정에 의거, 연차별 문화교류계획서에 포함시켜 관계협력을 도모해오다가 지난 77년부터는 별도로 매년 영화부문교류계획서를 조인, 이에 의거한 대표단교류, 영화교류, 기술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협정은 지난 1월 조인됐다.

특히 쌍방은 北韓당창건일, 소련 10월혁명일등 상호 주요기념일 행사를 계기로해 영화상영주관을 설정하는 등으로 영화예술부문의 협력을 다지고 있다.

(내외통신 655호, '89.9.22)

최근 北韓의 무역 및 外債실태

북한은 70년대 말까지는 선수입 후수출원칙에 입각한 수출입균형화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80년대 들어와 수출확대가 경제계획성패의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80, 83, 85, 88년을 「수출제 1주의 해」로 설정하는등 수출우선정책으로 선회하여 수출증대에 총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88년 9월 정권수립 40돌경축대회를 계기로 종래의 자립경제토대위에서의 대외경제확대추진정책에서 대외경제발전을 통한 자립경제발전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함께 3차 7개년경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수출주력상품의 수출극대화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高부가가치화와 아울러 합작·합영방식을 통한 교역기반 강화에 주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소·일등 일부국가와의 교역에 편중되어 있고 1차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등 북한외 수출능력 한계성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북한의 총 무역규모를 보면 80년 33.3억불로 최고수준에 달했던 무역고는 81~84년기간에는 감소하다가 85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로 발전되어 87년 41억불(수출 17억불, 수입 24억불)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공산권과의 무역이 80년 53%(34.3억불중 18.2

역불)에서 점점 증대되어 현재는 66~69%(87년 41역불중 27역불로 66%)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특히 소련과는 80년 총 무역액중 24%에서 87년 48%(19역불)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으로부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및 공장설비도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서방선진국과의 교역은 80년 28.6%(9.9역불)에서 87년 19.1%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서방기업들이 교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구조면에서 북한의 수출입상품 구성을 보면 수출에서 80년대 초까지는 비금속광물제품, 농수산물, 광산물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압연강재, 알루미늄 등 금속제품과 공작기계 기계류 및 섬유제품 등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2차상품수출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원유·폭스탄 등 원자재와 제철·화학·항공·광산설비 등 기계류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북한 무역전망을 보면 3차 7개년계획기간중 무역규모 3.2배증대 목표달성을 위해 수출제 1주의정책을 계속 견지하여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증대와 경공업제품을 비롯한 수출원천의 개발에 주력하며, 중·소와의 지방변경무역활동을 보다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상품의 품질제고 및 디자인·포장·보관분야 기술개발과 무역계약의 철저한 준수 등 대외신용회복 노력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공산권교역에 기본을 두면서 서방권과의 교류증대를 통한 교역다변화로 지역편중성을 완화하고, 기존무역활동의 한계를 극복코자 합작·합영 등 무역의 다변화를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및 무역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과학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전자제품 개발이 미흡, 외화가득율저하에 따른 외화수입부진으로 만성적 무역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대외채무는 88년말 현재 약 52억불로서 이가운데 서구은행단 및 일본, 서독등을 비롯한 대서방권 외채가 27.3억\$, 소련·중국등 대공산권 외채가 24.7억\$로 나타났다.

이같은 외채발생원인은 70년대초 일본 및 서구제국으로부터 연불로 도입한 설비대금, 상업차관, 곡물도입대금 등의 채불과 70년대이후 중·소로부터의 공장설비 기계류 수입증대로 인한 것이다.

북한은 76년이후 대서방 외채상환기일이 다가오자 연체이자 일부만을 상환하고 각국별로 지불연장합의를 3회 이상씩 해오다가 84년이후에는 연체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국가들로부터 공판철수위협과 채권단은행으로부터 채무불이행국 선언을 당하는등 국제사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북한은 채권국가들의 상환독촉에 견디다 못해 금·은등 귀금속을 비롯하여 무연탄등 광산물과 시멘트, 명태등 현물상환방식을 제시하는가 하면 합작을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변제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채권국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들 채권국가들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취급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차관 및 교역에 대한 보증을 대부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북한은 그나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오스트리아등에는 외채가운데 극히 일부이나마 변제하는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요구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작년 6월에는 외채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대서방은행단부채 (14억 도이취마르크)의 2/3 탕감안을 제시했으나 이또한 북한을 믿지 못하는 서구은행단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북한은 외채상환능력이 조성될때까지 외채지불 유예를 주장해왔지만 최근엔 이같은 채권국가들로부터의 상환압력에 직면하여 92년까지 5억 \$ 상환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외채는 금액면에서는 여타 채무국가들에 비해 적은액수이지만, 「평축」행사에 과다한 외화를 낭비했기때문에 외화난이 극심한 실정이며 또한 획기적인 수출증대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년간 외채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채권국가와의 상환연기협상에 있어서도 그간 북한의 불성실한 자세와 상환능력의 상실로 채권국가들과의 협상타결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서방은행단이 그들이 천명하고 있는대로 북한의 해외자산 압류조치를 단행할 경우에는 신규차관의 도입이 완전히 차단되고 서방권과의 무역위축은 물론 대외신용도 실추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 ▶

북한 연도별 무역현황

(단위 : 억 US \$)

연도 구분	70	75	80	81	82	83	84	85	86	87
수입	4.7	13.1	18.4	15.5	15.8	14.4	14.0	17.7	20.9	23.9
수출	3.3	7.7	15.9	10.7	12.6	11.1	12.0	11.7	13.6	16.7
합계	8.0	20.8	34.3	26.2	28.4	25.5	26.0	29.4	34.5	40.6

북한 연도별 외채현황

(단위 : 억 US \$)

연도 구분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서방권	21.6	23.9	22.2	17.8	16.4	15.6	11.3	15.0	22.3	28.0	27.3
공산권	12.0	11.6	12.4	13.4	12.6	11.9	11.7	14.2	18.3	19.8	24.7
계	33.6	35.5	34.6	31.2	29.0	27.5	23.0	29.2	40.6	47.8	52.0

(내외통신 653호 . '89.8.18)

南北韓 군사문제관련 자료목록

다음 문헌자료는 남북한 군사문제 관련된 기초 자료조사 일환으로, '75~'88 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군사문제 단행본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임.

◀ 군사전략 · 군축관련 자료 ▶

년도	자 료 명	지 자	면수	발 행 처
1979	• 군축문제 자료집	국회도서관편	68p	
1979	• 한반도의 억지전략 이론	이 종 학	348p	형설출판사
1979	• 동북아지역의 군사등식	중앙정보부편	98p	
1980	• 군비통제론 : SALT에 관한 연구	김 순 규	223p	경남대학교
1981	• 기로에 선 한반도의 군 사문제	이 종 학	442p	형설출판사
1981	•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 사 전략	국방대학원편	254p	
1981	• 핵의 세계와 한국 핵정책	이 호 재	304p	법 문 사
1982	• 제 2 차 유엔군축 특별총 회경과 및 관련문서	외 무 부 편	295p	

년도	자 료 명	저 자	면수	발 행 처
1983	• 민족생존전략 : 한국전략의 체계와 구상	조 지 연	297P	병 학 사
1983	• 핵개발과 핵확산 금지정책	윌리엄 C . 포 터	261P	국방대학원
1984	• 남북한의 군사전략과 동북아지역의 방위	국회도서관편	100p	
1984	• 한반도 전쟁상황 평가와 대응책 연구	국 방 관 리 연 구 소 편	96p	
1986	• 개발도상국의 무기 생산 (상·하권)	제임스 E . 카 츠	490p	국방대학원
1988	• 핵전쟁과 핵평화	Y. 하자비	475p	〃
1988	• 선별적 억제 : 통합장기 전략	F.C이클레	98p	〃
1988	•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전략	국방대학원편	104p	
1988	• 미국의 미사일 해외이전 지침, 미국의 해외원조 계획	〃	82P	
1988	• 정전협정 및 안보관계 조약집	육군본부편	95p	
1988	• 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	김 을 권	704p	세종연구소

◀ 주한미군 관련자료 ▶

년도	자 료 명	지 자	면수	발 행 처
1976	•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랄 프 N. 클 라 프 윌 리 엄 M. 카 펜 터	160p	국방대학원 안보문제 연구소 편
1977	• 주한미군과 한반도 : 그 방향과 대책	랄 프 N. 클 라 프 (구종서역)	325p	범 학 도 서
1977	• 미국의 장기안보정책 방향	헨 리 오 운 찰 스 L. 숄 츠	283p	국방대학원 안보문제 연구소 편
1979	•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 과 통상전력	레 슬 리 H. 브 라 운 찰 스 H. 소 텔 스	175p	〃
1979	•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국의회 보고회	김 종 휘 등 공 편	159p	〃
1979	• 주한 미지상군 철수 결 정 과정에 관한 연구	손 장 래	317p	동국대 박사 학위 논문
1979	•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정보 재평가	국회도서관편	175p	
1979	• 주한 미지상군 철수에 관한 청문록	〃	667p	

년도	자 료 명	저 자	면수	발 행 처
1980	• 주한미군 철수와 동북아의 안정	국회도서관편	36 p	
1981	• 한미 안보정책의 비교연구	정 준 호	283 p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1	• 미군에 대한 군사정책에 관한 연구	백 봉 중	211 p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2	• 한미 안보정책론	정 준 호	297 p	법 문 사
1983	• 한미 안보협력회의 자료집	국회도서관편	43 p	
1987	• 한국안보의 강화방안 : 외교적 목표와 접근	랄 프 N . 클 러 프	90 p	국방대학원
1987	• 미 . 일의 전략적 통합 - 일본의 선택	에드워드 A . 올 슨	76 p	//
1988	• 한 . 미 안보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 - 철군문제	A . 반도우	46 p	C A T O 연구소 정책분석자료

-時事資料-

統一教育('89-5)

1989年 10月 日 印刷

1989年 10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236-1749, 234-4103)

印 刷 **和 盛 文 化 社**

(電話 278-3421, 3422)
